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37.79	↑ 코스닥	841.82
	(+22.39)		(+5.83)
↑ 금리 (미국 9년)	3.340	↓ 환율 (원·달러)	1326.70
	(+0.024)		(-7.50)



파월 ‘금리동결’ 시사 짚어지는 ‘침체 그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정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부터 주요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 물가의 둔화 속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금리인상은 정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도 지난 19일(현지시간)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여해 오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생각했던 것 만큼 인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며 “이만큼 멀리 왔으니, 지금은 데이터 전망치의 변화를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평가할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美 물가둔화·고용시장 강세
파월 의장 “지켜볼 여유 있어”

일각선 경기침체 우려 분석도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주목

韓 경제도 대내외 악재 산적

◆ 물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파월 의장이 이처럼 말한 배경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9% 올랐다. 올해 1월 6.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에 진입한 것이다.

다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월 기준 PCE 물가지수는 4.2%로 전달 대비 0.1% 상승했다.

여기에 고용시장은 강세다.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비농업일자리는 25만3000개로 증가했다. 지난 3월 증가폭(16만5000개)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실업률도 3.4%를 기록해 1969년 이후 5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상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줄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임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임금 상승이 또다시 물가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직 금리동결에 명분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미국,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파월의 대답이 경기침체를 우려(예상)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부채한도가 31조3810억 달러로, 지난 1월 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추가로 국채로 발생할 수 없게 된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 막는 조치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고 있다.

내달 1일까지 예산협상이 결렬돼 디폴트사태가 1분기 동안 이어질 경우 증시는 45% 폭락하고, 국내총생산(GDP)은 6.1% 감소한다. 일자리는 830만 개 줄면서 실업률은 5%포인트(p) 오를 수 있다.

여기에 고금리로 소비는 둔화하고,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은행위기 여파에 따라 은행 대출은 까다로워진 상태다. 지난 3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회의 참석자는 올 하반기 미국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초부터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금리인상을 잠재적으로 중단해 경제활동과 고용을 둔화시킬 여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 한은, 오는 25일 성장을 하향 전망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로 올해 1월(5.2%)에 비해 대폭 둔화됐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의 인상되고, 하반기에는 교통요금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물가가 크게 떨어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에 따른 수혜도 미미하다. 현재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이연수요는 내수증심으로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불허하면서 여행수지 등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하반기 미국의 경기침체로 하반기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고금리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 가계의 소비 여력 악화, 부동산시장 불안 등이 더해져 내수부진이 심화되면 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오는 25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韓美日 “3국 전략적 공조, 對北 억지력 강화”

尹 ‘G7 정상회의’서 숨가쁜 외교전
韓日정상, 韓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윤석열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정상들과 만나 3국간 공조를 굳건히 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3국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의 신속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 6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原爆)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시작으로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등의 숨 가쁜 정상외교 일정들을 소화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전격 참석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 한·우크라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코모라, 한·

인도네시아 등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시다 총리와 역대 처음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原爆)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했다.

이번 공동 참배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총리가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최초이자,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처음 있는 일이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항공 빅딜’ 안갯속… EU 이어 美도 제동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美 매체, ‘법무부 소송 검토’ 보도
합병 무산 땐 1천억 비용 매몰 우려
출범 위한 노선반납 시 경쟁력 약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기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에서 미국과 EU가 양사 합병 시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병 무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EU는 두 회사 합병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동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중간 심사보고를 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다. 이어 18일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시작하며 독과점 문제 등을 살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양사 합병 심사 절차를 ‘간편’에서 ‘심화’로 상향했으며 당초 지난해 11월 예정이었던 최종 심사 발표도 연장했다. 이후 미국의

심사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양사 합병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지 매체가 보도한 미국 법무부의 소송 관련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현지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지난 12일 미 법무부와 대면 회의를 통해 미국 측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며, 대한항공과 지속해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尹-젤렌스키, 35분 회동… 우크라 재건 지원 요청 받은 듯 /사진 뉴시스
▲尹, 인니와 정상회담… “양국 협력 속도감 있게 진전”

▲與, ‘대선자금·자금출처·입법로비’ 3대 의혹 겨냥 총공세
▲정개특위,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코인 포함’ 법안처리 예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정부 제안 /사진 뉴시스
▲탈원전 vs 폐기… 전·현 정부 총출 2라운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尹 “韓日관계 새 전기…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진전해야”

》1면 ‘韓美日3국 전략적 공조’서 계속

尹 대통령 “원폭피해자 추모 뜻 전한
日 기시다 총리의 용기 기억될 것”

이 자리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 동포인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등 10명도 함께 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악수를 나누고 피해자들을 향해 묵례한 뒤 평화기념공원 내 국제회의장으로 이동해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방한 시 기시다 총리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산업·과학기술·문화예술·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제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고 함께 하며 앞으로 정상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

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 이후 6개월여 만에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10분 가량 진행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도윤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韓日정상,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21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헌화할 꽃을 들고 위령비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국가핵심기술 기업 인수때 국내기업도 ‘심사’ 거친다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등 73개 기술

앞으로는 국내기업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도 심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 중이다.

개정안은 국내 자본이 국내에 사모펀드를 설립해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기관을 인수합병할 때에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인수합병을 할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외 법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제재 수단이 있으나, 한국 법인 간 인수합병일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

고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분야 73개 기술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통째로 인수합병당하는 방식으로 산업기술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3건 적발됐는데, 분야별로 반도체 24건, 디스플레이 20건, 이차전지와 자동차가 각 7건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 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해 정부안으로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어”

》1면 ‘항공빅딜, 안갯속’서 계속

이에 항공 업계에서는 EU와 미국이 합병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합병이 무산되면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대한항공은 그동안 합병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에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는 등 투입비용이 결국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독자 생존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등 자회사도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또 자국 산업 이익을 챙기려는 미국과 EU 등이 합병 조건을 추가할 경우

그에 따른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미주 등 일부 노선 반납을 요구해 자국 항공사들이 반사이익을 얻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영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현지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과 코드셰어(공동운항)을 하고 런던 히스로공항 슬롯 7개를 넘긴 바 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큰 합병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합병을 준비하면서 외항사에 슬롯을 내어줄 경우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은 악화된다”며 “초대형 항공사 출범을 위해 양사의 실익이 축소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산계곡, 침백공원, 축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람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홍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韓 임시직 비중 28%… OECD 국가 중 증가속도 가장 빨라

〈2021년〉

文 정부 기간 임시직 비중 7.7%p ↑
회원국 평균치 12.2%… 2배 이상
세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임시직근로자 비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임시직근로자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4년간 7.7%포인트(p) 늘었다. 국내 통계청은 근로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1년 미만인 경우 임시직으로 분류한다.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및 한 달 미만의 일용직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2017년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비율은 20.6%에 머물렀다. 이어 2018년에 21.2%, 2019년 24.4%, 2020년 26%로 잇따라 증가한 뒤 최신 집계인 2021년에는 더 뛰어나 28.3%를 기록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본사

/OECD

록했다.

이 기간 OECD회원국 평균치가 12.2%에서 11.8%로 외려 0.4%p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2017년 당시 한국보다 임시직 비중이 컸던 포르투갈과 폴란드의 경우 각 5.1%p와 11.1%p 감소해 2021년에 16.9%와 15.1%를 기록했다.

캐나다는 1.7%p 줄어든 12.1%였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 1.8%p와 1.5%p 줄어 15.1%와 11.4%를 기록했다. 2017년 불과 5.9%에 그쳤던 영국의 임시직 비중은 4년 간 소폭이지만 더욱 내려간 5.6%였다.

이 밖에 스웨덴과 튀르키예(-1.7%p), 슬로베니아(-5.9%p), 헝가리(-2.9%p) 등이 마이너스 증가폭을 보였다.

일부 연도 수치가 빠진 국가 중에선 일본이 2021년 기준 15%(2018년 15.7%)였고, 2017년 기준 미국(4%)과 호주(5.3%)가 매우 작은 수준의 임시직 비중을 나타냈다. 38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이스라엘의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한국은 이제 회원국 가운데 임시직 비중이 가장 큰 콜롬비아마저 추월할 기세다. 콜롬비아는 같은 기간 28.2%에서 28.5%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세계의 한 관계자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냈다.

이에 따라 임시직근로자 비중 OECD 1위라는 오명을 쓸 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국내 실업자수는 지난 4월 기준 80만4000명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고용보조지표 3’에 따르면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사실상의(확장) 실업자 수는 이의 세 배가량인 2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중 청년층(15~29세) 공식 실업자 수는 26만7000명인데 반해 확장 실업자 수는 79만7000명에 육박했다.

또 정부가 이달 상순 발표한 4월 실업률은 2.8%이다.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해 역대 4월 기준 최저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직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모두 취업자에 포함한 뒤 나머지 순수 실업자만 산정한 수치다. 좀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부 취업자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실업률을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미 해외에서 나온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日, 반도체 업체 지원 강화 韓, ‘설비·인력’ 확충 청신호

기시다, 삼성 등 반도체 관계자 초청
현지 투자 요청… 공급망 협력 강조

전세계 반도체 업계가 다시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잘 갖춰진 생태계에 정부 지원까지 받아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 관저에 전세계 주요 반도체 관계자를 초청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대만 TSMC, 미국 인텔과 마이크론 및 IBM에 더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그리고 벨기에 IMEC 등 최고 경영자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이 참석했으며, 팻 겔싱어 인텔 CEO도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 관심을 끌었다.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함께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동석했다.

일본은 참가자들에 현지 투자를 요청했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대규모 투자 지원까지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도 긍정적이다. 마이크론은 5000억엔(한화 약 53조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를 짓기로 했다. 앞서 TSMC는 1조2000억엔(한화 약 113조원)를 들여 소니 및 텐소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던 상황, 제2공장 계획도 언급했다. 인텔 역시 일본에 R&D센터 등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3000억원 수준을 들여 패키징이나 테스트 라인을 새로 만들 계획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업계가 망설임없이 일본 투자를 결정하는 이유는 막대한 투자 지원이 꼽힌다. TSMC는 구마모토현 공장 투자금 중 40%에 달하는 4760억엔을

지원받았고, 제2공장도 지원금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이크론이 투자기로 한 5000억엔도 40%인 2000억엔이 지원된다. 삼성전자도 300억엔 투자 중 100억엔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생태계도 일본 투자 장점이다. 일본은 반도체 8대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장비와 소재 업체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

일본 섬코와 신에츠는 전세계 웨이퍼 시장 절반 이상을 독점하는 회사다. 이중 신에츠는 EUV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한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도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노광 공정도 최첨단 공정에서는 네덜란드 ASML EUV 장비가 독점하고 있지만, 레저시 공정에서는 니콘이 심자외선(DUV) 장비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캐논이 개발한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NIL) 장비가 EUV 부담을 덜어줄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식각 공정 역시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영향력이 크다. 한동안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지만, 최근 하이브리드 옥사이드 식각 장비를 론칭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본격화했다. 삼성전자도 이미 일부 D램 공정에 도입했으며,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주요 장비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후공정에서도 일본 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칩을 자르는 장비 세계 최고인 DISCO와 세계 최고 세라믹 기술로 반도체 패키징에 투자를 본격화한 교세라, 반도체 몰딩 부문 강자로 거론되는 도와 등 기업이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김재용기자 juk@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뛰는 ETF 위에

나는 NH다이렉트인덱싱

NH전문가 추천 인덱스를 마음대로 조정하자

내가 원하는 종목은 더하고! 내키지 않는 종목은 빼고!

ETF로 부족할 때

NH다이렉트인덱싱

[투자주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은 자산가치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 수익률이나 미래 수익률의 추세를 나타내지 않으며, 실제투자 시 수익률은 서금수수료, 매매차익, 세금, 수수료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수익률의 추세를 나타내지 않으며,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 국내 주식에 매 시 수수료율 0.001%~0.005% 오프라인 0.40%~0.50% (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증권거래세 0.001% / 매체 별 상이하며 기타 수수료에 대한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거래의 체결 시 수수료는 연 0.5%로 분기 단위로 후취하며, 일본 첫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 증권거래세 등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거래 시 보수(ETF발행사가 추가)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금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375호 [2023-02-07 ~ 2024-02-06]

투자, 문화가 된다

NH투자증권

‘최고 70층’ 초고층 재건축 화재… 3개월 새 2억 ‘깡충’

부동산 현장 르포

〈1〉여의도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기대감 커져
매수문의, 몇몇 단지선 상승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걸림돌

침체일로로 걷던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를 나타냈고, 미분양 증가세도 주춤하다. 일부 신규분양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와 금리인상 정점론, 집값 하락 멈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 주요 지역을 둘러봤다. 〈편집자주〉

지난 주말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현지 부동산시장에선 최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로 기대감이 커진 곳이다. 여의도 지역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을 추진할 때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되면서 매수 문의가 부쩍 늘고 몇몇 단지에선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하철 9호선 셋강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린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1971년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재건축 관련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곳이다. 단지는 총 24개동, 1584가구로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시범아파트 인근 A공인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최고 65층으로 탈바꿈되

는 시범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라 최대 용적률 500%가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급매물 소진 이후 간간이 나오던 매물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거둬 들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이달 전용면적 118㎡가 22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20억4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상승했다. 전용면적 79㎡는 지난 1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김대환 기자

15억원에 거래됐지만, 3개월 만에 거래가격(17억원)이 2억원 올랐다.

시범아파트 옆에 위치한 한양아파트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105㎡가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1년 2월 18억6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끊긴 매매가 이번에 다시 비슷한 가격대로 거래된 것. 전용면적 149㎡는 이달 24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인 21억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4.3%(3억원)에 달한다.

한양아파트 인근 B부동산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한양아파트를 비롯해 삼익, 은하, 광장, 미성, 목화, 삼부 등 해당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라고 아쉬워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24년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가 가능하다. 특히 2년간 매매와 임대차 금지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겹투자는 불가능해진다.

C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크루즈항구 개설 등 다양한 개발 화재가 힘을 얻기 위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냉동피자’, 美 전초기지 세워 글로벌 공략

美 슈완스 피자 공장 약 4만㎡ 증설
대표제품 ‘레드바론’, ‘토니스’ 생산
5년간 연평균 성장률 5.5% 기록

CJ제일제당이 미국을 해외 시장 공략의 전초 기지로 집중 육성한다. 그 일환으로 세계 최대의 냉동피자 생산시설을 구축하며 미국 식품사업 확대를 가속한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캔자스주 살리나에 위치한 슈완스 피자 공장을 약 4만㎡ 증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설 확장으로 슈완스 살리나 피자공장은 총 9만㎡(축구 경기장 약 12개 크기)의 세계 최대 규모 냉동피자 생산시설이 됐으며, 대표 제품인 ‘레드바론’과 ‘토니스’

를 생산한다.

시장 조사기관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냉동피자 수요는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5%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7년 글로벌 냉동피자 시장 규모를 63억 8608만달러(약 8조4648억원)로 전망했다.

CJ제일제당은 급증하는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살리나 공장 내 물류센터도 확장하고 있다. 2025년에 완공될 물류센터는 냉동피자와 함께 비비고를 포함한 K-푸드 제품들의 미국 내 유통을 책임질 예정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에는 데이비드 톨랜드 캔자스 부지사를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과 슈완스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완공식이 진행됐다. 슈완스의 디미트리오스 스미리니오스 CEO는 “미국 내 급증하는 냉동피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레드바론 브랜드의 생산 역량을 크게 늘렸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제조시설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피자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의 지난 1분기 미국 식품사업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 늘어났다. 슈완스는 CJ제일제당이 인수한 첫 해인 2019년 약 2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3년만인 지난해 연간 매출 3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K-푸드와 합

계 주력제품인 냉동피자의 경우, 대표 브랜드인 레드바론이 시장점유율 19.4%를 차지하며 1위 제품인 네슬레의 디조르노와 불과 1%p 차이로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슈완스는 글로벌 식품사업 확대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K-푸드 대형화에도 큰보탬이 되고 있다”며 “미국 넘버원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J제일제당은 기존 미국·유럽·일본 이외에 미진입 국가 진출에도 신경쓰고 있다. 올해 초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미진출 국가 진입 본격화와 만두·치킨 등 7대 GSP 중심 혁신 성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캔자스 살리나 슈완스 피자공장의 증설을 축하하는 완공식에서 디미트리오스 스미리니오스 슈완스 CEO가 리본을 커팅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러시아 ‘덕’… 日 제치고 1분기 자동차 수출 ‘세계 1위’

차이나 뉴스&리포트

올 1~3월 107만대 전년 대비 58% ↑
신에너지차 수출 올 1분기 38만대
최대 수출국 러시아 14만대 규모

중국이 올해 1분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 데다 러시아로의 수출이 급증하면서다. 이대로라면 연간 기준으로도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중국의 올해 1분기

(1~3월) 자동차 수출이 107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8% 급증했다고 밝혔다.

일본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같은 기간 95만대를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국이 자동차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된 것은 전기차였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개발하고, 구매 및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왔다.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의 수출은 1분기 3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93%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신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안팎이

다.

제조업체별로는 신에너지차 수출 1위는 테슬라 차이나(9만대)며, SAIC 모터(5만대)와 BYD(3만대)가 각각 2, 3위로 집계됐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분기에도 계속 늘고 있다. 업계는 올해 수출이 4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연간 기준으로도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당초 최대 수출국이 되려면 향후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봤지만 러시아로의 수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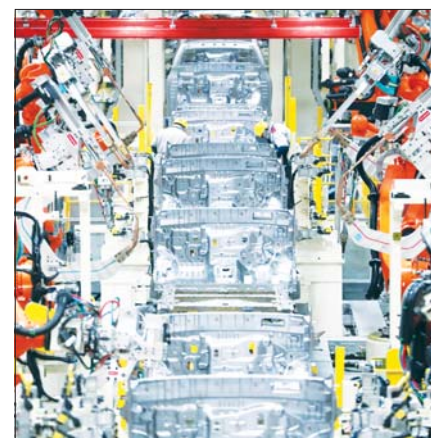
급증하면서 시간이 단축됐다.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1분기 최대 수출국은 러시아였다. 수출 규모는 14만대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토요타와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러시아 공장을 폐쇄하고 일제히 시장에서 철수했다.

그 공백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메웠다. 특히 체리자동차와 창청자동차는 러시아에서 판매를 확대했다. 두 곳은 모두 중국 지자체와 연계된 곳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다.

중국은 1분기 러시아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럭을 3만대 가까이 수출했다. 전년 동기 대비 7배에 달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자동차 공장. 중국은 올해 1분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신화·뉴스스

하는 규모다. 러시아 다음으로는 멕시코와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이 수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보험스토리 웹소설 / 에세이 공모전



접수기간 | 5.4-6.16

삼성생명 보험스토리 웹소설/에세이 공모전

여러분이 상상하고 꿈꾸는
보험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접수기간 2023.05.04 - 06.16

공모부문 웹소설

참가대상 일반인 대상(고등학생 이상)

주 제 보험을 주제로 한 창작 소설

참가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상규모 총 50명 / 6,350만원 상당

컨설턴트 에세이(수기)

생명보험설계사(컨설턴트) 전체 대상

컨설턴트로서 고객과 함께하며 경험한 사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입선

1명 / 상금 3,000만원
1명 / 상금 1,000만원
3명 / 상금 300만원
10명 / 부상

1명 / 상금 500만원
1명 / 상금 200만원
3명 / 상금 50만원
30명 / 부상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주최 **삼성생명** | 후원 **생명보험협회**

與野, 대치국면 장기화... ‘전세법·청문회’ 처리 늦어지나

전세법, 네 차례 심사에도 지지부진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 갈등 고조
野 박민식 후보자 자진사퇴 주장

여야가 이번 주에도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사부터 현안 질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 주 중 이어지면서다. 야당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도 뇌관 중 하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지난 1일, 3일, 15일, 16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법안 심사를 했으나 합의는 하지 못했다. 야당에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



전세사기·강동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시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야당이 반대하면서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받는 보증금 범위 확대(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정부 비용 부담 확대(기존 50%에서 70%) 등을 추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도 공공기관이 피해자 대신 경·공매로 보증금

회수 후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정무위원회는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 야당은 ▲이념 편향 ▲가거 주가 조작 변호 이력 등을 이유로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논란을 방어하는 한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재라는 점에 대해 부각하며 야당 공세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21일 기준 60일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22~23일 예정된 소위원회를 거쳐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

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5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상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현안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와 함께 양국 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쟁점 법안 대치국면 관련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참석 이후 열리는 현안 질의인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與, 소상공인·예비군 지원 등 민생행보 속도

민생119 2차회의... 당 전달안 검토
주중 예비군 지원 방안 발표 예정

국민의힘이 ‘지도부 리스크’를 극복하고, 민생 현안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2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택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119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연다.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 제1차 전체회의 당시 제안된 정책 과제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무료화 및 디지털화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소액생계비대출 추가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어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대책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생119는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한 뒤 에너지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에너지 지원책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신문고’에 국민들의 고충도 계속 접수하는 중이라고 민생119는 밝혔다. 지난 4일부터 20일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접수된 민생 고충은 171건에 이른다. 분야별로 ▲생활안전(14건) ▲부동산(10건) ▲창업·취업(8건) ▲소상공인(8건) ▲교육(6건) ▲금융(2건) ▲출산·육아(2건) ▲기타(121건)이다.

민생119는 온라인 신문고에 민주노동총 산하 택배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 강요 및 특정 정당 가입 종용 등의 고충도 접수된 사실을 밝혔다. 민생119는 “택배 산업 현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민주노동총 불법 활동으로 위기에 직면한 택배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생119는 생업 현장 부담은 줄이고, 불법은 엄단해 ‘안심 민생’을 받드

시 이룰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이번 주 2호 정책으로 ‘예비군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김기현 당 대표가 직접 주관·주재하고, 지도부 내 청년 인사인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이 대거 참여하는 당내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다.

1호 정책으로 ‘누구나 토익 5년’을 발표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번 주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예비군 훈련 현장에 방문, 2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호 정책에는 예비군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주요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불참 시 학생들의 출석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대책인 것이다.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훈련수당 현실화 요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 선출직 최고위원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달 9일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치른다.

/최영훈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점검 시찰단 日 출국

“과학적 기준으로 안전성 확인할 것”

“ALPS 농도 관련 원데이터 요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할 우리 정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방류 계획이 적절하지 전체적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들을 확인,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단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방사는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후쿠시마에 파견된다.

시찰단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정화되고 바다로 방류되는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오염수 방류 전 단계에서 측정하고 저장하는 K4 탱크 군과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접근해 핵종 제거 설비 상태·구성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유 단장은 “ALPS를 중심으로 핵종 제거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방류 관련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체크할 것”이라며 “ALPS 시설 전후 농도 관련 원데이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 관련해서는 “IAEA 검증팀에는 우리 전문가 한 분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시료 채취 검증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시료 3가지를 갖고 있고, 우리가 최인접국이기에 때문에 저희 나름의 별도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尹 대통령 “북한 위협·우크라 전쟁, 국제규범 정면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3에 참석해 자유토론 발언자로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평화안보, 법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만인도 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

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민주당

정무특보에 김영배 의원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 신임 정무특보에 조선인 김영배(사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1일 신임 정무특보에 김영배 의원을 임명했다. 조선인 김 의원은 부산 출신으로, 지방정부 및 청와대, 국회 등을 모두 경험했다. 이번 인선은 소통 능력을 확장하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8년



간성북구청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최고위원을 거쳤으며, 현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의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내대표실도 김 의원이 정책 현안에 밝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 당내 소통은 물론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과의 소통에도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태홍 기자 pth7285@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운동기반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임종룡號 첫 우리은행장 26일 결정… 이석태·강신국 주목

이번주 자추위서 2인 선정 후
26일 정기이사회서 발표 예상
영업력 입증에 관전 포인트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손발을 맞춰 나갈 차기 우리은행장이 오는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대표에 임명되지 않은 인물이 유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다음 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군(쏜리스트)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6일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프로그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왼쪽부터),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캐피탈 대표. /우리금융

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1차(롱리스트) 후보군 4명을 공개했다.

롱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64년생, 순천고 중앙대 상업은행 출신)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 금융부문장(64년생, 동래고 고려대 한일은행 출신)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64년생, 동국대사대 부교 국민대 한일은행 출신)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65년생, 관악고 경희대 상업은행 출신)다.

우리금융 '경영승계프로그램'은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워크숍 형태의 1대 1 심층 인터뷰 ▲임원 재임 기간 중 평판 조회 ▲업무보고를 통한 회장과 이사회의 업무역량 평가 ▲자추위 최종 심층면접 및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P T)으로 구성됐다.

현재 3단계까지 완료된 상태로 다음 주 후보를 2명으로 추리고 4단계 심층면접 후 차기 은행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차기 은행장 선임의 관건은 영업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회장이 차기 은행장 선출의 중요한 기준으로 '현장 영업력'을 꼽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좌 이슈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한 행장 선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점수와 외부전문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임 회장은 지난 3월 취임사를 통해 "자회사들이 영업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주사가 명확한 전략 방향을 제시해 금융지주체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박완식 대표와 조병규 대표가 선임 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재 우리카드와 우리캐피탈 대표를 맡고 있어 우리은행장이 될 경우 자추위를 또 다시 열어 새로운 대표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장 오디션으로 회사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의 양대 부문인 국내영업부문(이석태)과 기업투자금융부문(강신국)을 총괄하는 은행 내 2인자 중 한명이 차기 은행장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문장은 은행장 다음 최고 임원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통상적으로 차기 은행장 후보로 거론이 된다"며 "국내영업과 기업투자금융이라는 주요 부문에서 차기 은행장이 선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주담대 신규차주, 고정금리 선택 후 갈아타는게 유리”

고정형-변동형 금리차 0.34%p
기존 대출차주, 유지하는게 유리
금리 본격 하락때 갈아타기 고려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오면서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차가 좁혀졌다. 이에 따라 두 금리 사이에서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금리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고정형과 변동형에 따라 이자 부담이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정형과 격차 0.34%p로 좁혀져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18일 기준 연 3.97~5.995%로 집계됐다. 지난 1월 30일(연 4.49~6.96%) 보다 금리 하단이 0.52%포인트(p), 상단은 1.04%p 내려간 것이다. 변동형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7월(3.92%) 이후 10개월 만이다.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



최근 은행 대출금리가 1년 6개월 전 수준인 3%대까지 떨어지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80~5.796% 수준이다. 서울 시내의 은행 외벽에 붙어있는 대출금리 안내문. /뉴시스

63~5.49%다. 이에 따라 주담대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차는 하단기준으로 0.34%p로 줄어 들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 이유는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COFIX)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

44%로, 전월 대비 0.12%p 하락했다. 3.44%의 코픽스는 한은 기준금리(3.50%)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규 코픽스가 기준금리를 밑돈 적은 2010년 공시를 시작한 이래 2013년 4월과 2014년 7월, 두 번 밖에 없었다.

이처럼 주담대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차가 좁혀지자 차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현재 고정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아직은 고정형이 '유리'

그럼에도 업계는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에는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변동형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마찬가지다. 6개월 단위로 금리 조정을 할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다음 달 금리 조정을 통해 지난해 말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은행 대부분이 변동형 상품을 고정형으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약 0.5~2% 정도의 수수료를 부

담해야 한다.

다만, 신규차주의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빌리고 향후 갈아타라는 조언도 나온다.

실제 연 3%대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의견에서다. 연 3%대 금리는 각종 우대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대다수의 차주들은 대략 4%대 중후반 수준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주담대 금리는 평균적으로 기준금리보다 1.4~1.5%p 정도 높게 책정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0%인 점을 고려하면, 차주 대다수가 연 3%대 주담대를 적용 받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 대다수가 3%대 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기준금리가 2% 수준까지는 낮아져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우선은 고정형 상품 금리가 낮은 만큼 고정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카드 사기 고도화… 해외여행시 도난·분실 주의하세요

금감원 Q&A

사용금액·사용기간 등 안심설정
신고 전화번호 메모로 빠른 대처

Q. 오랜만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갈 계획인데,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유의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A.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①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를 가져간 후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를 탈취해 온라인에서 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②카드의 IC칩을 몰래 가져가거나 ③ATM기 등에 복제기를 설치해 카드를 위변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시 다음을 반드시 유념하세요.

첫째,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카드 사용국가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

다. 또한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승인내역을 문자로 받아 카드 도난·분실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카드 뒷면 서명을 필수로 하고,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마세요.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보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결제 시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카드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하기 쉽기 때문에 해외 사실 ATM 사용을 최대한 삼가야 하며,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 눈앞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구남영 기자

기업은행, 보이스피싱 제로화 나선다

모니터링 전담인력 6명 채용

IBK기업은행이 보이스피싱 제로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인력 6명을 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인력 공채'를 통해 제1금융권 경력이 30년 이상 되는 지점장급 퇴직직원을 채용하고 금융사기 모니터링 점검시간을 확대 운영 중이다.

기업은행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을 위해 2021년 12월 AI기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탐지·분석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에게 유선안내를 통해 고객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IBK기업은행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종 사기수법을 안내하는 등 주기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니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피해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원스톱 솔루션 구축해 ‘해상풍력’ 공공주도 개발 필요”

탄소 배출량 감소·RE100 도전

효성중공업·상해전기 공동세미나
풍력재생에너지 발전 자리 마련
韓 해상풍력 현황·향후 과제 발표

역행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인 탄소 배출량 감소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한 방법으로 '해상풍력'이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의 효성중공업과 중국의 풍력터빈 제조사인 상해전기풍력은 18일 웨스턴조선 서울 2층 오키드룸에서 '한-중 해상풍력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두 그룹과 함께 제3자인증기관인 티유브이 슈드(TUV SUD) 코리아도 주최 업체로 참여했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풍력발전산업을 선도·공략하기 위해 투자 중이다. 효성중공업은 해상풍력터빈 KS인증을 등 록을 비롯해, 해상풍력터빈 공급을 시작으로 수소 밸류체인 강화에 힘쓰고 있다. 상해전기풍력은 해상풍력 터빈 분야에서 누적 세계 2위, 중국 1위 업체로 높은 해상풍력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다.

이번 세미나의 기획을 맡은 장원석 효성중공업 기전PU PM은 “태양광이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로 여겨지지만, 해상풍력의 대한 세계적인 규모도 크다”



웨스턴조선에서 열린 '한-중 해상풍력 공동세미나' 현장에 참여한 관련업체와 지자체 관계자들. 효성중공업 풍력사업팀 팀장인 고우식 공학박사가 '한국 해상풍력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며 “중국은 특히 해상풍력 발전 분야에서 유럽과 견줄만한 실력을 갖춘 나라로, 2014년경부터는 중국 정부 주도하에 지원을 받으며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해상풍력발전 3세대를 지나 4세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2010년 1세대에서 멈췄다가 이제 다시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며 “중국 업체의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풍력재생에너지 발전의 네트워킹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풍력은 '기회'… 중국은 좋은 교보재
효성중공업 풍력사업팀 팀장인 고우

식 공학박사는 '한국 해상풍력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고 박사는 1996년부터 효성중공업연구소 풍력발전 기술팀에서 풍력 분야 발전을 연구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는 '풍력 발전 전문가'다.

무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수라는 게 고 박사의 의견이다.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은 ▲높은 에너지 잠재량(육상<해상) ▲대규모 단지개발 가능성 ↑ ▲민 바다 설치 시 주민 피해 제한적인 환경영향 등이 장점이다. 풍력 발전은 2015년부터 설치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고, 2015~2022년까지의 해상풍력 신규설치용량을 중국과 나머지 국가로 분류해서 볼 때, 중국의 성장은 유독 돋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의 해상풍력 현황은 2022년 3기가와트고, 2030년까지 23.8기가와트만큼의 보급계획이 잡혀 있지만 진행은 더디다는 게 고 박사의 설명이다.

다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해상풍력 보급 추진만큼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중국과 유럽이 1~2년이면 건설을 완료할 수 있다면, 한국은 3~4년이 걸리고 중국 대비 한국의 사업비는 2배나 비싸다”라고 예를 들었다. 고 박사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저풍속 태풍 영향권은 물론, 기상조건, 해조조건이 유사한 중국의 사례분석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고 박사는 국가별 규제와 공급망, 개발 경험 차이를 중국의 사례를 들어 연구하고 협력한다면 향후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은 저풍속용 터빈 발전 분야에서 유럽보다 앞서 있으며, 7m/s의 저풍속은 한국 해상풍력과 유사하다. 유럽은 평균 9m/s의 풍속을 가지고 있다.

◆해상풍력 대중화 위해 '공공주도의 사업자 공모' 필요해

배기표 리스크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이사는 한국 해상풍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션을 준비했다.

배 대표는 리스크 매니징과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볼 때 해상 풍력 산업의 타당성 조사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개발 관련 소요 시간·비용 등은 물론 투자 지속을 위한 합리적 예측성·안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배 대표는 '공공주도의 해상 풍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지 선정 및 사업자 선정 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대표는 “정부 주도의 관련 산하기관과 지자체, 어업인, 전문가 등이 협력해 해상풍력에 대해 논하고 이를 통해 인·허가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 신뢰성'의 근원적 위협이 산업 자체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배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입지 선정 후 사업자 공모 방식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해상 풍력 원스톱 솔루션”을 구축해 안정적인 공공 주도 개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LG, ‘기술·예술 결합’ 새로운 미래 그린다

딘킨스, ‘LG 구겐하임’ 첫 수상
인공지능 활용 공정·평등 메시지
“새로운 시각으로 기술 활용 의미 커”
어워드 로고 디자인 담아 광고 선포

LG와 구겐하임 뮤지엄이 힘을 합쳐 기술과 예술을 합친 새로운 미래를 그린다.

LG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제1회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어워드는 지난해 LG와 구겐하임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2027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기술과 예술 융합을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한 협력 일환이다. 혁신 예술가를 후원해 글로벌 미술계에 새로운 장을 열고 LG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작품 활동과 전시, 연구 등을 지원하며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시할 계획이다.

1회에는 아티스트 스테파니 딘킨스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AI와 AR 등 첨단 기술로 AI가 습득하는 정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공정과 평등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 교수로 20년 이상 다양한 예술적 실험도 이어왔다. 국제적 뮤지엄 관장과 큐레이터, 학자 및 아티스트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맡았다. 10만달러 상금과 트로피를 받게된다.

트로피는 LG와 구겐하임이 기술과 예술이 결합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특별히 제작했다. 디지털 기술을 상징하는 0과 1 숫자가 교차하는 순간을 담아 ‘미



미국 뉴욕타임스스퀘어에 상영 중인 광고 영상.

래의 예술’을 표현했다. LG전자 북미 지역 대표 윤태봉 부사장이 전달했다.

대표작은 ‘비나48(Bina48)과의 대화 (Conversations with BINA48)’라는 영상작품이다. 흑인 여성 비나 로스를 랫을 모티브로 제작한 AI 로봇 ‘비나48(Bina48)’과 딘킨스 간의 대화를 통해 AI가 학습하는 정보에 인종, 성별, 장애, 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심사위원단은 “여러 후보자 중 새로운 시각으로 AI를 활용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 딘킨스의 작품은 의미가 크다”며 “AI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짚어낸 딘킨스의 깊이 있는 연구와 작품 활동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스테파니 딘킨스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LG와 구겐하임의 지원에 감사한다”며 “예술이 우리 사회에 영감

과 자극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제 작품을 통해 소중한 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나오미 백우스 구겐하임 수석 큐레이터는 구겐하임 뮤지엄을 대표해 “스테파니 딘킨스의 폭넓은 예술 활동, 사회적 메시지, AI 기술에 대한 열정적 탐구는 기술에 기반한 예술의 지평을 확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통해 그녀의 특별한 작품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영광”이라 밝혔다.

박설희 (주)LG 브랜드 수석전문위원은 “LG는 기술이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을 만드는 매개라고 믿는다”며 “제1회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인 스테파니 딘킨스가 앞으로도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에 울림을 주는 예술을 더욱 널리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LG 구겐하임 글로벌 파트너십은 주식회사 LG와 함께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도 함께한다. 이번 어워드와는 별개로 협력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LG전자는 구겐하임 뮤지엄과 ‘올해의 신예 아티스트’ 선정 및 큐레이터 후원, LG디스플레이는 젊은 예술 후원자 협회(YCC) 파티를 후원하는 등 투명 올레드 기술을 소개한다.

한편 LG는 구겐하임 뮤지엄과 협력과 기술을 뜻하는 곱하기와 더하기 기호를 디자인한 ‘LG구겐하임 어워드’ 로고 타입을 영상으로 담아 제작해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상영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



LG디스플레이는 SID에서 OLED 기술로 우수논문상 2편을 수상했다.

‘초대형 OLED·스트레처블’ 우수논문 선정

LGD 3세대 OLED TV 패널 소개

LG디스플레이가 만든 OLED 신기술에 전세계 전문가들이 호평했다.

LG디스플레이는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워크에서 2개 기술로 ‘올해의 우수논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초대형 OLED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2개 논문이다. 500여편 논문 중 상위 20여편 논문에 포함돼 우수논문상을 받게 됐다.

‘프리미엄 TV를 위한 신개념 초대형 OLED’를 주제로한 논문은 80인치 이상 초대형 OLED 개발에 적용된 주요 기술을 소개했다.

신홍재 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구팀이 작성했다. 화면이 커질수록 고화질을 균일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OLED 한계를 극복하고 ▲패널 및 구동 기술 개선 ▲유기발광 소자 성능 향상 ▲배열 최

소화 등을 통해 80인치 이상 초대형 OLED TV 패널을 개발하고 혁신을 주도했다.

특히 ‘메타 테크놀로지’ 신기술로 현존 OLED TV 중 가장 밝은 2100니트(nit, 1nit는 촛불 하나의 밝기)를 달성하고 에너지 효율은 22% 개선한 3세대 OLED TV 패널을 소개하며 초대형 TV도 LG디스플레이의 OLED가 최적임을 강조했다.

‘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연구는 늘리거나 접고 비틀기 등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궁극의 ‘프리폼 디스플레이’를 상용화에 가깝게 진화시켰다.

/김재웅 기자

K-게임, 콘솔 앞세워 美 진출… “세계시장 26% 포기 못해”

소니·마이크로소프트 컨트롤러 선배
韓 게임사, 카트라이더·TL 등
콘솔게임 글로벌 진출 목표 개발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5월 세계 접근성의 날을 맞아 PS5 콘솔용 액세스 컨트롤러의 상세 정보와 이미지를 최초 공개했다.

/소니

을 통해 개발된 액세스 컨트롤러는 다양한 종류의 교체 가능한 버튼과 스틱 캡이 포함돼 있어 플레이어가 원하는 강도, 동작 범위 및 신체적 요구 사항에 맞는 다양한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플레이어는 액세스 컨트롤러를 평평한 표면에서 사용하거나 360도 방향으로 맞추거나 컨트롤러를 AMPS 패턴 마운트 또는 삼각대에 고정 가능하다. 또한, 아날로그 스틱과 컨트롤러의 거리 역시 조절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2일부터 오

는 9월 1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진행되는 ‘게임사회’ 전시를 통해 한국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Xbox 어댑티브 컨트롤러(Xbox Adaptive Controller)를 선보인다.

이 전시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비디오 게임이 동시대 예술과 시각문화,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 사용되는 Xbox 어댑티브 컨트롤러는 이동이 제한적인 게이머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주로 중점을 둔 제품이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큰 단추를 갖추고 있으며, 외부 스위치, 버튼, 마운트 및 조이스틱에 연결하여 게임의 접근성을 높여준다. Xbox 어댑티브 컨트롤러의 다양한 기능은 장애를 가진 게이머들이 보다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해 설계됐다.

아니타 모탈로니 MS X박스 접근성 총괄은 “모든 사람들이 게임의 즐거움과 연결성,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X박스 어댑티브 컨트롤러는 접근성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게이머, 전문가와 함께 수년간의 연구, 테스트 및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사, 전 세계 20% 차지 콘솔시장 포기 못해

국내 게임사들도 세계 게임 시장의 26%를 차지하는 콘솔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입모아 말한다.

그간 PC중심에서 모바일로 힘이 실렸다면 앞으로는 콘솔게임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침이다. 특히 서구권 시장 공략, 국내 콘솔 시장 성장과 맞물려 콘솔 게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올해 초 출시한 넥슨의 카트라이더:드리프트, 연내 출시 목표인 엔씨소프트의 TL, 올해 8월 출시 예정인 네오위즈의 P의 거짓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에서 개막하는 글로벌 게임쇼 2023 서머 게임 페스타(SGF)에 넥슨,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펄어비스등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을 앞세워 참가한다.

넥슨은 SGF 2023에서 대규모 PvP (유저 대 유저 대결) 신작 PC 게임 위해 이븐의 시네마틱 영상과 얼리엑세스(미

리해보기) 체험판을 공개한다. 스마일게이트는 가상현실(VR) 게임 ‘크로스파이어:시에라스쿼드’로 참가한다. 네오위즈는 오는 8월 출시 예정인 자체 개발 콘솔 게임 P의 거짓으로 참가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모바일 및 PC 게임이 주가 되지만 여전히 북미 등 서구권에서는 콘솔이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적 상황이 예측되지 않은 가운데, 미주 진출 활로 모색을 위해 콘솔을 앞장 세울 가능성이 높다. 콘솔 시장을 놓치 못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대표이미지. /넥슨

“편리한 삼성페이 쓰고 할인 받으세요”

CU편의점, 매주 1000명 경품 추첨
티머니·캐시비 교통카드 프로모션
티웨이항공과 제휴 마케팅도 펼쳐



삼성전자가 CU편의점과 함께 다음달 30일까지 ‘삼성페이 X CU 빅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페이 사용자가 CU편의점에서 결제하는 모습.

/삼성전자

5 40mm ▲갤럭시 버즈2 프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다음달 30일까지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 신규 가입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전원에게 각각 CU 모바일 쿠폰 1만원과 5000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5월 한달 동안 지급 없는 라이프스타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재 삼성페이는 온·오프라인 결제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항공권, 학생증?운전면허증 확인, 영화티켓, 쿠폰 선물하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지갑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한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에서 사용 가능한 티머니 교통카드·캐시비 교통카드와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5월 한 달간 티머니 교통카드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현대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한다.

캐시비 모바일 교통카드를 등록해 편의점과 교통카드로 처음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추첨을 통해 600명에게 CU 3천원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엔데믹을 맞아 최근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맞춰 티웨이항공과 제휴 마케팅을 펼친다. 삼성페이로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티웨이 항공권을 결제한 고객은 최대 1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매한 항공권을 삼성페이에 등록하면 ‘GS25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상장 대표 주관사에 한국·NH투자증권



수행 역량·전문성 우선적 검토
출시 작품 모두 흥행한 개발사

시프트업은 상장(IPO)을 위한 대표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프트업은 지난달 주요 증권사에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고, 지난 11일에 프리젠테이션 진행 후, 지난 19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

시프트업은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상장주관업무 수행 역량과 산업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며, 시프트업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상장 이후에도 회사와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증권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과 협력해

자본 시장에서 시프트업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받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프트업은 김형태대표가 2013년 설립한 게임 개발사다. 과거 ‘창세기전’, ‘마그나카르타’, ‘블레이드 앤 소울’의 콘솔타이틀부터 온라인·모바일 게임까지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에서 일러스트를 담당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쌓았다. 시프트업의 아트 역량은 게임업계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으며, 출시한 모든 작품을 흥행작 반열에 올려 놓았다.

첫 작품인 ‘데스티니 차일드(2016년 10월)’ 성공에 이어 차기작 ‘승리의 여신:니케(2022년 11월)’가 국내외 흥행에 크게 성공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세 번째 작품인 AAA급 콘솔게임 ‘스텔라 블레이드’는 국내 최초로 소니의 PS5 독점 라인업으로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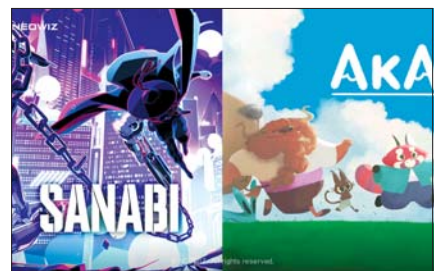
/최빛나 기자

네오위즈, ‘인디 라이브 엑스포’ 참여

대표 인디게임 산나비·아카

네오위즈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산나비(SANABI)’와 ‘아카(Aka)’가 오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인디 라이브 엑스포(INDIE Live Expo) 2023’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인디 라이브 엑스포’는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유튜브, 트위터, 트위치 등 온라인에서 열리는 글로벌 인디게임쇼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1,800여 개 이상의 인디게임을 선보여 왔으며, 누적 영상 조회수 7,300만 회를 돌파하는 등 전 세계 게이



네오위즈 ‘산나비’, ‘아카’, ‘인디 라이브 엑스포’ 참가.

/네오위즈

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네오위즈는 자사의 대표 인디게임인 ‘산나비’와 ‘아카’로 ‘인디 라이브 엑스포 2023’에 참가한다.

/최빛나 기자

LG U+ 아이들나라, ‘똑똑! 보이는 백과사전’ 독점 공개

DK백과사전 기반 필수 지식 콘텐츠

LG유플러스의 키즈 전용 서비스 ‘아이들나라’가 어린이 고객의 콘텐츠 시청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DK백과사전 기반 필수 지식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신규 오리지널 콘텐츠 ‘똑똑! 보이는 백과사전’을 독점 공개했다고 21

일 밝혔다.

아이들나라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U+3.0 ‘4대 플랫폼’ 전략의 일환으로 선보인 키즈 전용 서비스다. 양방향 콘텐츠 1만여편을 포함한 총 5만여편의 콘텐츠, 1200개의 세분화된 메타 데이터 기반의 아이별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 한달 간 사용이력 기반의 우리

아이 성장 리포트를 제공하며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똑똑! 보이는 백과사전’은 똑똑하지만 놀고만 싶어하는 박사과 지식 탐구에 열정을 불태우는 꼬마 조수가 다양한 소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백과사전 속으로 탐험을 떠나는 스토리다.

/채윤정 기자 echo@

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작!

블록버스터뮤지컬

아메도사우루스

2023. 6. 2(금) - 6. 25(일) 우리금융아트홀

© STUDIO EON / DAEWON MEDIA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2-764-9102

주최 | 대원미디어 주관제작 | 이지기획 마케팅 | 이제이컴퍼니



반도체株 부활 신호탄?... 삼성전자, 연중 최고치 경신

미국증시 반도체 주식 훈풍 영향
삼성전자 6만8400원 1년래 최고
SK하이닉스, 지난주에만 11% ↑

증권가 “하반기 수급개선 예상
현재실적 바닥 통과중이 확실”
외국인들도 삼성·SK 풀림현상

미국 증시의 반도체 훈풍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매수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형주와 더불어 관련 부품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 이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주가로 마감했으며, 지난주에만 11%가 올랐다. 1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종가는 각각 6만8400원, 9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7300원이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 AMD 등 반도체 관련주가 모두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6% 상승했다. 이러한 미국 증시 흐름과 삼성전자 감산 효과에 기대감, 일본 정부 차원의 투자금 확정 등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도 2차전지 다음의 시장 주도 주자로 반도체주 강세를 꼽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 이상 감산에 따른 공급축소 효과만으로도 하반기 글로벌 D램, 낸드 수급은 균형에 근접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재고 감소, 가격하락 둔화,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등으로 분명한 수급 개선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현재

실적이 바닥을 통과 중인 것은 확실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업계 웨이퍼 투입 축소가 (-)25% 수준으로 올 3분기까지 지속되면 올해 D램 생산은 전년 대비 7% 감소할 것”이라며 “3분기부터 공급 부족 구간 진입을 예상하며, 축적된 재고의 소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들어 꾸준히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풀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조3000억 원 가량 순매수했으며,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도 3615억 원 어치 사들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코스피 종목으로 현재까지 약 9조1355억 원을 순매수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의 저점 탈피 기대감과 일본 증시의 강한 랠리가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 확대에 일조했다”며 “외국인의 주식 매수 지속 여부는 중국 경기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재고 감소

속도에 달렸다”고 예측했다.

최유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올해 외국인이 지분율을 높이는 종목은 반도체와 같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자동차처럼 실적이 호조를 보인 특징이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수급 흐름이 반도체 업황 바닥을 확인했던 2019년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증시에서 ▲하나머티리얼즈(15.26%) ▲하나마이크론(6.06%) ▲동진세미캠(14.29%) ▲솔브레인(7.49%) ▲ISC(13.72%) 등이 시장을 주도하며 업종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했다. 다만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은 15.8%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1위인 TSMC(58.5%)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포스코이앤씨, 생물다양성 보존 홍보 나서

세계 벌의 날 맞아 ‘Happy 벌’s Day’
어린이·가족 등 3000여명 참여 성황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어린이 꿀벌 축제 ‘해피 벌스 데이(Happy 벌’s Day)’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이앤씨가 건국대학교, 인천시설공단, 연수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꿀벌 개체 수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래세대의 생태감수성 제고와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꿀벌은 세계 100대 농작물의 71%를 수분하는 매개로, 인류의 식량 및 생존에 유익한 곤충이나 기후변화, 먹이부족 등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에서만 수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20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어린이 꿀벌 축제를 열어 미래세대 꿀벌 체험 교육, 생물다양성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십 억 마리 이상이 사라지는 등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약 3000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모여 큰 성황을 이룬 이번 행사에는 꿀벌 체험 프로그램, 다채로운 환경 공연, 경품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들이 꿀벌과 밀원식물에 대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꿀벌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꿀벌 정원 시계 만들기 ▲벌 키링 만들기 ▲벌 MbeeTI TEST ▲벌 보드게임 등 어린이들이 생물다양성에 대해 쉽게 배우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더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 마술쇼, 생물다양성 퀴즈쇼 등 각종 공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린이 꿀벌 축제와 도시양봉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더 많은 기업들이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김종술 한화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팀장(왼쪽)과 이미경 네이버 해피빈 리더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친환경 사회공헌 앞장

네이버 해피빈과 업무협약 체결

한화투자증권이 네이버 해피빈과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술 한화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팀장과 이미경 네이버 해피빈 리더 등이 참석했다.

이번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특히 MZ세대들이 친환경, ESG 관련 퀴즈에 참여해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캠페인 종료 후 참여자들이 응원하는 환경 단체 2곳을 선정해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원관희기자 wkh@

금감원, 내달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공인회계사회·한국XBRL본부 공동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XBRL 재무공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XBRL은 기업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오는 6월 1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리는 XBRL 국제 콘퍼런스에는 국제 XBRL 협회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

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제 XBRL 콘퍼런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그간 우리나라의 재무공시 선진화 노력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금감원 관계자는 “XBRL 재무공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월 말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XBRL 재무공시를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은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금융업 상장사와 IFRS를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로 확대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호반건설

충남 산불피해 지원

이재민 성금 1억 전달

호반건설이 지난달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는 활동에 동참했다.

호반건설은 최근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억원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구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 4월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도왔다. 지난 2월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구호 성금과 구호 텐트를 전달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전국 4개 단지서 1814가구 분양 개시

분양 캘린더

상무 센트럴자이 등 2곳 견본주택

5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1814가구(일반분양 11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롯데캐슬그랑파르크’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불로동 ‘호반씨밋 검단신도시’,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 센트럴자이’ 등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 28블록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0층, 22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972가구 규모다. 단지에는 제2남해고속지선, 김해국제공항 등 기존 교통망에 더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도보권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인근 평강천 수변공원과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kdh@

디자인·고성능 ‘감성’… 현대차, 미래 담은 ‘N 비전 74’

공코스 델레간차 빌라 데스테 참가
국내 최초 콘셉트카 포니쿠페 영감
배터리 모터·수소연료전지 결합
주행거리 600km, 제로백 4초 이하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N 비전 74’가 세계적 클래식카 전시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차가 이탈리아의 대표 클래식카·콘셉트카 전시회에서 ‘현대 헤리티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는 19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사흘간 이탈리아 레이크 코모에서 열린 ‘공코스 델레간차 빌라 데스테 2023’ 참가해 ‘N 비전 74’를 전시했다고 21일 밝혔다. N 비전 74는 고성능 N 브랜드의 수소 하이브리드 롤라랩이다. 롤라랩은 모터스포츠 노하우가 적용된 고성능 기술을 양산 모델에 반영하기에 앞서 연구개발 및 검증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빌라 데스테(레이크 코모 연안에 있는 르네상스 양식의 고급 호텔)’에서 열



‘공코스 델레간차 빌라 데스테 2023’에 전시된 ‘N Vision 74’.

리는 우아함의 경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공코스 델레간차 빌라 데스테는 1929년 처음 시작돼 매년 이탈리아에서 열린다. ▲클래식카 ▲콘셉트카 ▲이륜차 부문별 전시 및 경연이 진행된다.

지난 2018년 제네시스 브랜드가 참가해 ‘에센시아 콘셉트’를 전시했으며, 현대차는 이번이 첫 참가다.

N 비전 74는 현대차가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국내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했던 당시 현대차 임직원들의 열정과 기술, 디자인, 고성능 감성이 총망라된 차량이다.

이와 동시에 N 비전 74는 전동화를 넘어 그다음까지 바라보는 고성능 N 브랜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차량으로, 친환경 시대에도 ‘운전의 재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N 비전 74는 배터리 모터와 수소연료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특징적이다. 가혹한 모터스포츠 환경에서도 출력 저하가 없으며 5분 수준의 짧은 충전 시간을 자랑한다. 차량 전면에는 85kW급 수소연료전지 스택이 자리하며,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에는 62kWh 리튬이온 배터리, 후면에는 용량 2.1kg의 수소탱크 2개가 장착돼 있다.

후륜에 장착된 좌우 독립형 듀얼 모터는 680 마력의 출력을 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초 이하 수준이다. 주행 거리는 600km에 육박한다.

시각적으로는 쐐기 모양의 노즈(nose)와 종이접기를 연상케 하는 기하학적 선을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 포니 쿠페 콘셉트 특유의 순수한 면(面), 역동적인 비례감, B필러 디자인도 계승했다.

루크 동커볼레 현대차그룹 CCO 사장은 “현대차는 고유의 유산에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길을 열어 디자인 혁신

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센터장 부사장은 “현대 디자인 DNA 근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디자인 헤리티지의 시작점이 됐던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명망 있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며 “N 비전 74는 과거의 노력에 대한 헌사이자 미래를 향한 우리의 선언이며, 포니 쿠페 콘셉트의 대담한 정신을 미래 지향적 디자인으로 계승해 한국 최초의 스포츠카를 만들고자 했던 엔지니어들의 꿈을 실현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N 비전 74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의 헤리티지를 공유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레이크 코모에서 고유의 헤리티지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기 위한 ‘현대 리유니온(Hyundai Reunion)’ 행사를 처음으로 열고 ‘포니 쿠페 콘셉트’를 원형 그대로 복원한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oul.co.kr

“입학해서 원하는 강의 듣고 학사모도 높이 던져요”

르포

KT ‘Y캠퍼스’

20대 전용 브랜드 팝업스토어
연남동서 이달 28일까지 운영
각 층별로 동아리 등 체험클래스

홍대입구역에서 연남동 골목으로 들어서 ‘연터파크’를 10분 넘게 걸다가 한 골목에 들어섰다. KT에서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동안 운영하는 민트색 건물의 팝업스토어 ‘Y캠퍼스’가 눈에 띄었다. 캠퍼스 앞에서는 잔디광장과 카페트럭에 자리잡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를 나눠주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 빛나는 Y / Your Own Spotlight’ 슬로건을 내건 Y브랜드 기반의 Y캠퍼스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카페콤마에 오픈한 20대 전용 브랜드 Y의 팝업스토어이다.

KT는 이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20대들이 진정으로 캠퍼스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뭘까’를 고민했고, 명사를 초청



서울 연남동 카페콤마에 KT가 오픈한 20대 전용 브랜드 Y의 팝업 스토어 ‘Y캠퍼스’.

해 대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캠퍼스 안에서 이용자들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강의들이 마련돼 있다. 또 각 층별로 강의실, 도서관을 만들었고, 체험클래스도 꾸몄다.

입구에 들어서면 입학처가 눈에 띈다. 입구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입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식권과 포춘쿠키도 제공한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큰 캠퍼스의 강의실에 눈에 들어온다. 이 곳은 미국 대학 느낌으로 꾸민 게 포인트이다. 명사들을 초청한 강연들이 바로 이 곳에서 진행된다. 19일에는 요즘 가장 핫한 20대 아티스트 지올팍이 ‘도전’을 주제로 Y들을 만났으며, 20일에는 KT를 소개한 코미디언 김용명의 강연이 준비됐다. 또 한쪽 벽면에는 빔 프로젝트를 쏘 티빙의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상영한다.

1층에는 여러 칸의 Y캠퍼스의 캐비닛이 마련돼 있는데, 아티스트들이 만든 굿즈들이 캐비닛 안에 전시돼 있다. 여기 전시된 제품의 상당수는 Y박스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다. 캐비닛 위에는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티스트들이 작업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들이 보여졌다.

2층에는 과방이 마련돼 있었다. 방명록이 준비돼 있는데, 2층에 전시된 다양한 포토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고 방명록에 기재하면 직원들이 스티커를 붙여준다. 2층에는 한쪽 공간을 레트로 감성으로 꾸몄고, Y2K 상품이 전시돼 있었

다. 창가 쪽으로 가면 휴대폰들과 패드가 놓여있었는데,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강연을 신청할 수 있었다. 3층에 올라가니 중앙도서관이 있었다. 교양강의를 이 곳에서 진행하며, 푸어링 아트 클래스, 가드닝 클래스, 캐릭터 그리기, 캐릭터 일러스트, 조항 클래스 등이 시간대별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학생들이 직접 학생증도 만들어볼 수 있다. 4층은 동아리방으로 꾸며져 있었다. 조항동아리는 LG생활건강과 함께 마련했는데, 다양한 향들을 맡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외부로 나가니, 옥상에서는 학사모 등 졸업복장들이 마련돼 있었다. 이곳의 입학생들은 1학년이어서 졸업이 가능하다. 학위수여식과 졸업 선물 증정이 이뤄진다.

김은상 KT 마케팅 담당 커스터머 사업본부 상무보는 “20대가 중요한 시장이고, 20대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20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echo@



LG 베스트샵 강서본점에서 열린 세탁문화 세미나.

LG전자 세탁문화 세미나 개최 의류관리 노하우 공유

LG전자가 베스트샵에서 의류 관리 노하우를 공유한다.

LG전자는 18일 LG베스트샵 강서본점에서 세탁문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장마철, 깨끗한 날씨 해법’을 주제로 6모션 건조기 체험과 ‘트루 스팀’ 및 ‘중요 후 세탁물 케어’ 등 트롬 세탁기 차별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LG전자는 다음달 8일 LG베스트샵 불광본점에서 ‘친환경 비누 만들고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 알아보기’ 세미나를 비롯해 8월까지 다양한 세탁 문화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으며, 참여시 세탁세제와 리유저블백 등 사은품도 제공한다.

LG전자는 전국 40여개 LG베스트샵에서 트롬 건조기를 직접 체험하는 ‘우리동네 셀프 건조방’도 마련한다. 젖은 빨래를 가지고 방문하면 트롬 건조기로 직접 건조해주는 자리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박원영 리빙솔루션마케팅담당은 “차별화된 6모션이 적용된 LG 트롬 건조기를 매장에서 마음껏 체험하고 세탁·건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여는 등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공영홈쇼핑, ‘ISMS’ 3회 연속 인증 획득

80개 항목 심사해 적합성 평가

공영홈쇼핑이 온라인 쇼핑물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3회 연속 갱신·획득했다.

2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

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가공인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와 관련해 관리체계수립 및 운영 16개 항목,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항목으로 총 80개 항목을 심사해 적합성을 평가한다. 최초 심사에서 3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획득한 후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재인증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中소연구원, ‘최저임금 쟁점’ 심포지엄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의신기자클럽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연다.

21일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선 유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업종별 차등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업종·규모별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해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열리는 KOSI 심포지엄은 중기연구원 최세경 정책컨설팅센터장이 관련 주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엔 오동윤 중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김승호 기자

대기업 사익편취 기준 구체화·물량몰아주기 규제 완화

공정위,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부당한 이익' 판단기준 규정 물량몰아주기 '합리적 고려·비교' 과도한 규제... 선택적 요건으로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재 심사지침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귀속 여부로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관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과도한 규제로 보고,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

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합리적 비교나 고려'를 선택적 요건으로 바꾸고, 판단기준으로 시행령상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충족하면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해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개정했다.

특히,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또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 교환·시설확충 시 타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호환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긴급성의 예시로는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해 이를 방지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용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주의 10년간 피해자 42% 사망

고용노동부가 21일 맨홀 등 밀폐공간 근로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입 전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때이른 더위로 오페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이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 362명 중 사망자 수가 42%인 154명에 달했다.

오페수처리를 비롯해 정화조, 축산 분뇨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 발생, 각종 관수로,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시 황화수소 또는 산소결핍 발생 등이 고용부가 꼽은 주요 밀폐작업장이다. 또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 시 산소결핍,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 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이 위험요인으로 제시됐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해야 하고, 근로자는 내부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안전보건소

안전보건영상공모전 개최 최우수작 상금 200만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21일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활동'을 주제로 안전보건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나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희망자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 활동이나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활동, 그밖에 안전행동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사용자가 상업적 의도 없이 직접 만든 창작물(UCC) 및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제작물(브이로그)이 허용되는 등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단 영상물은 5분 내외 분량이며 본인이 직접 촬영·편집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6월16일까지이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출력작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심사를 통해 출품작 가운데 수상작 13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작 1점엔 상금 200만 원과 고용노동부장관상, 우수작 2점엔 상금 100만 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 자율주행기술, 국제표준안 단계 진입

현대차·한국車연구원 제안한 '자율주행 위험 최소화 조치' 통과

한국이 주도하는 자율주행 국제표준이 국제표준 직전 단계에 진입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 시작된 자율주행 레벨3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5~19일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제16차 지능형교통시스템(ISO/TC 204) 국제표준화회의'에서 현대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안한 '자율주행을 위한 위험 최소화 조치' 표준이 회원국 투표를 통해 국제표준 발간 직전 단계인 국제표준안 단계에 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표원과 IOS 기술관 리이사회 이사인 KAIST 문영준 교수를 단장으로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 36명



청계천 자율주행 버스 운영 모습.

/서울시

이 참여한 한국대표단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30개국 전문가 약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26건의 자율주행 국제표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에 국제표준안 단계에 진입한 '자율주행을 위한 위험 최소화 조치' 표준은 2년 반 동안

의 논의 끝에 이번 회의에서 통과해 국제표준 제정에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자율주행을 위한 위험 최소화 조치' 표준은 주행 중인 자율주행차량이 이상을 일으켰을 때 자동으로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 설계 방법이다.

이 표준안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에 필수로 적용되는 핵심 표준으

로,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 및 부품의 설계-개발-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격적으로 열리는 자율주행 레벨3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까지 한국 주도로 제정 완료된 ISO 국제 표준은 총 16종이며, 한국 주도로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인 아이템은 총 26건이다.

이 가운데 국제표준안 단계에 진입한 표준은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동적 데이터 및 지도 데이터베이스 사양', '자율주행 버스의 연결성 및 안전 기능에 대한 성능 테스트', '개인 ITS 스테이션을 통한 긴급 서비스 지원 안내', 'ITS 개인용 ITS 스테이션 기반의 옥내외 원활한 포지셔닝을 위한 ITS 시스템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 등 6개다.

이번 회의 기간 중 국표원은 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SAE)와 양자 실무회의를 개최, '한-미 자율차 표준화 포럼'의 설립을 제안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리산 침엽수 서식지 21% 생육상태 취약

국립공원공 "개체군 쇠퇴 경향 보여"

지리산 상록침엽수 서식지 가운데 21%에 달하는 지역의 나무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체수가 대폭 줄거나 고사목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아(亞)고산대(102.77㎢)에 서식하는 상록침엽수를 개체 단위(76만4천772그루)로 진단했다. 공단 측은 열 달가량의 정밀진단을 실시해 생육상태 '취약(4등급)' 지역이 11.4%(11.7㎢), '매우취약(5등급)' 지역이 9.6%(9.89㎢)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공원공단은 '매우양호' 지역을 1등급, '양호'를 2등급, '보통'을 3등급

으로 분류했다. 공단에 따르면 생육상태 1등급 지역은 5.1%에 불과했다. 2등급이 15.7%, 3등급 58.3% 순이다.

공단은 "반야봉과 중봉 등 지리산 서부지역 봉우리 중심으로 매우취약(5등급) 지역이 분포한다"며 "대부분 구상나무가 분포하나 생육 밀도 낮고 후계목 발달이 적어 개체군 쇠퇴의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고산대란 산림한계선(수목이 숲을 이루는 지역)과 고목한계선(키 큰 나무가 더이상 자라지 않는 지역) 사이의 전이지대를 가리키는데 한반도에는 가문비나무·눈향나무와 같은 냉대성침엽수가 주로 분포한다. 아고산대는 지리산을 비롯해 설악산·오대산·태백산·소백산·덕유산 등 백두대간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배달·렌트社,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서울 맥도날드·경주 카빙 예비실증

서울과 경주에서 전기이륜차 수요가 많은 배달사업자와 렌트사업자가 참여하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배터리 교환사용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이륜차의 가장 큰 수요처인 배달사업자와 관광지 렌트사업자와 협력, 국내 생산 교환형 배터리팩, 충전스테이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전기이륜차가 활용된다.

실증에는 서울 맥도날드 2개소(강남

청담 DT점, 은평 구산점)와 경주 황리단길 관광 렌트사업자 카빙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과 경주에서 각각 예비실증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이륜차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에서는 운영 최적화 서비스, 배터리 이상 및 위험 예측 모델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공유스테이션의 충전 성능과 기능 측면 사용자 편의성 검증, 안전성 분석 등이 이뤄진다.

실증을 통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과 표준화 사업의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실수요자인 배달사업자와 렌트사업자 등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플랫폼 개발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유한양행

우리 가족 모두 **마그네슘 충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마그네슘
함량 UP
신제품 출시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마그비스피드 액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액 Double Action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2023-1668-002201

홍준표, 두바이서 ‘대구 미래 50년’ 그린다

〈대구시장〉

두바이 공공주도형 개발방식 설명회
K-2 공항 후적지 개발 방안
24시간 운영되는 신공항 연계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 설계를 위해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출장길에 오른 홍준표 대구시장이 두바이 현지에서 대규모(공공주도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개발 선진사례를 시찰했다고 대구시가 21일 밝혔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K-2 공항 후적지를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 관광·상업·첨단산업 도시로 개발해 대구의 미래 50년을 이끌어가는 월드시티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두바이가 추진한 세계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창의적 발상과 혁신의 실행 과정 및 시행착오를 벤치마킹하고 대구시에 적합한 모델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개최된 '두바이 공공주도형 개발방식 설명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두바이 합틀 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두바이 공공주도형 개발방식 설명회'에서는 두바이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설명과 대구의 K-2 공항 후적지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와 현지 시찰을 통해 글로벌 관광·상업·비즈니스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인공호수와 물길

로 이루어진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축물과 다양한 활동이 형성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구시는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와 비즈니스 및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4시간 잠들지 않고 운영되는 글로벌 여객·물류거점 신공항과의 연계와

특별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 및 기업친화적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특히 세계를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첨단기술(AI, 메타버스 등)을 통해 대구 미래 50년을 이끄는 서비스 및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번 설명회와 현지시찰을 통해 얻은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K-2공항 후적지의 비전과 전략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고, 지난해 10월에 착수한 '공항 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세부)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바이처럼 글로벌 여객·물류거점 신공항을 통해 하늘길을 열고 공항 후적지를 글로벌 관광·상업·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조성해 대구의 미래 50년의 대변혁을 이끌어 가는 신성장 거점이 되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주한외교단 초청해 부산 홍보여행 개최

13개국 22명 참가… 상호협력 증진
‘글로벌 허브 중추도시’ 사업 알리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19~20일 이틀간 주한외국공관장과 관계자 총 13개국 22명을 부산으로 초청하는 '2023 주한외교단 초청 부산 홍보여행(뽕투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한외교단 초청 부산 홍보여행은 국제적 도시 부산의 핵심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국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2017년 처음 개최해 올해 7회째를 맞는다. 지난해에는 국제적 중심 금융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 부산 금융기관을 소개하며 국제적 경제 협력 관계망을 구축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올해 홍보여행 참가국은 ▲유럽 6

개국(덴마크, 루마니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핀란드) ▲아시아 5개국(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미주 2개국(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 총 13개국이다.

시는 이번엔 부산을 찾은 주한외교단에 올해가 '글로벌 허브 중추도시 부산'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해임을 알리고, 이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을 소개하며 부산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박준준 부산시장은 "부산과 주요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신 강의구 부산영사단장을 비롯한 명예영사와 언론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경북 쇼핑몰 ‘사이소’ 매출액 38% ↑

소비자 맞춤 마케팅·협업사업 진행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의 매출이 가파르게 솟고 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들이 사이소의 지난 달까지 매출액은 1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억원보다 38% 늘었다.

품목별로는 한우, 사과, 쌀 등 농축산물 매출액이 74억원으로 전년 동기 59억원보다 25% 늘었다.

부가가치가 높은 홍삼가공품, 참기름, 과채음료 등 가공식품의 매출액은 28억원으로 전년 동기 15억원보다 87%가 늘었다.

도는 정례 이벤트(월요·수요특가), 봄소풍·가정의 달 기획전 등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의 효과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구동경제지원사업, 농협 사과·한우 할인행사, 경북도 보건정책과 출산축하쿠폰지원사업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진행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로 운영되던 쇼핑몰을 도 단위 광역플랫폼으로 통합 운영한 것이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전 시군 쇼핑몰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들이 춤을 추고 있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열린다

독일 등 국내외 40여 팀 초청

‘제23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하 미마프MIMAF)’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목포 원도심 차안다니는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좋을시고 좋을시고!’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미마프’는 목포에서 활동하는 극단 갯돌(대표 문관수)이 주관하는 순수 민간 예술축제이다.

축제는 독일, 스페인 등 국내외 40여 팀이 초청돼 다양한 공연 예술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족시킬 예정

이다. 특히 올해 축제는 4년 만에 개최되고, 일정을 여름철에서 5월 봄철로 옮겨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마프는 개·폐막 놀이를 비롯해 해외 초청작, 국내 초청작, 목포 로컬 스토리 5선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개막놀이는 ‘힘내라 목포’를 주제로 전국제전 목포 성공개최를 비롯해 관광거점 도시, 문화도시, 원도심 경제 활성화 등 지역 최대의 관심사를 대형 소원등으로 밝혀 성공을 기원한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지역 이모저모

영광군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기관표창과 함께 지방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로 7천5백만 원을 확보하였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각 시군의 지방세 수확, 세외수입 징수, 납세자 편의정책 등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걸쳐 총 3개 분야 32개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와 군민들의 성숙한 지방세 납세의식이 더해져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영광(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광양시

‘다산안전대상’ 우수기관 선정

광양시가 전라남도 주관 ‘2022년 다산안전대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년 연속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했다.

‘다산안전대상’은 전남도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재난 예방과 대응,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평가로, 개인, 단체, 시군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광양시는 평가대상인 안전문화운동과 재난관리평가에서 모두 ‘1위’로 평가돼 안전문화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1억원을 받게 된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울산시

‘베트남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

울산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함께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의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은 매년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로 기업들을 파견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통해 징코텍 주식회사 등 지역 중소기업 7개사가 선정됐으며,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를 방문한다.

파견 기업은 연계된 바이어와 베트남 현지에서 1:1 수출 상담을 통해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수출 계획 등을 논의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충남도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

충남도는 환경부 주관 ‘2023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등 57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사업자 선정에 따라 도는 총사업비 57억원(국비 10억원, 민간투자비 47억원)을 투입해 도내 13개 시군, 67개 공공시설에 전기 급속 충전기 95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 대상지에 백제문화단지, 안면도자연휴양림, 꽃지해안공원 등이 포함됨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문화·관광 시설의 충전취약지역 감소,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원승일 기자 won@

진주시, 아홉번째 ‘모모장터’ 진행

5개 이전공기관 등 공동 주최

경남 진주시는 충무공동 영천강변과 이성자미술관 옆 광장, 공원 등에서 나누어 개최했다. 또한 자원순환체험 및 로컬푸드 장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안전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됐다.

올해 행사에는 특별히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와 협업해 지역 창작활동가들의 기념품 연계 지원을 위해 박람회 동시 개최했으며, 공공기관 관계자 및 지역민들에게 창작활동가들의 물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외에도 강소농연합회 및 전통시장 상인회, 마을기업이 참여해 로컬푸드 제품을 홍보하고 이용을 장려했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함께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돼 영천강변과 이성자미술관 옆 광장, 공원 등에서 나누어 개최했다. 또한 자원순환체험 및 로컬푸드 장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안전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됐다.

올해 행사에는 특별히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와 협업해 지역 창작활동가들의 기념품 연계 지원을 위해 박람회를 동시 개최했으며, 공공기관 관계자 및 지역민들에게 창작활동가들의 물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외에도 강소농연합회 및 전통시장 상인회, 마을기업이 참여해 로컬푸드 제품을 홍보하고 이용을 장려했다.

생크림 가득 ‘반갈샷’ 열풍… 편의점, 디저트 빵 한판대결

〈빵을 반으로 갈라서 찍은 사진〉

CU 작년 연세우유 크림빵 인기
올 ‘연세우유 말차 생크림빵’ 출시

GS25 ‘빌로우크림까눌레’ 입소문
앱 ‘우리동네 GS’ 검색어 1위

홈플러스 ‘생크림폭탄단팥빵’ 선보
7일만에 누적판매량 3만개 돌파

MZ세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갈샷’(반을 갈라 내용물을 보여주는 사진) 인증으로 ‘크림 디저트’ 열풍이 불고 있다.

편의점 단독 상품으로 공전의 히트를 친 ‘CU 연세우유 크림빵’에 이어 대형 마트도 크림 디저트를 출시하며 경쟁에 참전했다. 지난해 1월 CU는 전체 중량의 약 80%를 크림으로 채운 ‘연세우유 크림빵’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출시 당 해인 지난해에만 2500만개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약 500만개가 추가로 팔려나가면서 식지 않은 인기를 입증했다.

크림빵 인기로 힘입어 옥수수, 황치즈, 솔티 캐러멜 등 다양한 맛으로 MZ



모델이 홈플러스 몽블랑제에서 생크림폭탄단팥빵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연세우유크림빵이 편의점 업계의 ‘크림빵’ 열풍을 주도했다. 디저트 인기에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앱 ‘포켓CU’의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20배 늘기도 했다.

/BGF리테일

세대의 입맛을 공략했으며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은 출시 16개월 만에 3000만개를 돌파했다.

이 여세를 몰아 CU는 이달 8번째 상품으로 ‘연세우유 말차 생크림빵’을 내놓았다. 보성과 제주산 차잎 분말을 함께 사용해 말차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구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CU의 신제품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달 21~27일 일주일간 CU 앱 ‘포켓CU’에서는 ‘연세’ ‘말차’ 등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30만 건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CU 관계자는 “연세우유 말차 생크림빵은 예약 구매 시작 하루 만에 1만개가 팔려나가면서 시리즈 내 일평균 최다 예약 구매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이는 전작인 솔티 카라멜 출시 당시보다 30% 정도나 빠른 속도”라고 전했다.

이에 질세라 GS25도 최근 디저트카페 ‘빌로우’와 손잡고 ‘빌로우크림까눌레’(오리지널·얼그레이·초콜릿)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SNS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지난 4월 GS25 디저트 매출

1~3위 모두 해당 상품들이 휩쓸었다. GS25 앱 ‘우리동네GS’에서도 크림까눌레는 검색어 순위 1위다. 지난달 출시한 휘낭시에에 크림을 더한 ‘크낭시에’도 디저트 판매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좋은 편의점 디저트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러한 기세를 몰아 업계가 다양한 양질의 크림 디저트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의점 디저트 열풍은 유통업계 전반

으로 확대되고 있다. 홈플러스 몽블랑제가 ‘생크림폭탄단팥빵’을 선보인 것. 지난 11일 판매를 시작한 해당 제품은 7일만에 누적 판매량 3만개를 돌파하며 완판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1분마다 6개씩 팔린 셈”이라며 “일부 점포에서는 개점시간부터 빵이 나오는 시간까지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생크림폭탄단팥빵’은 전체 중량을 경쟁사 대비 약 2배, 팥 중량을 약 3배 늘린 반면, 2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레시피로 만든 생크림을 사용해 고소하고 진한 풍미를 높이고, 전체 중량을 크게 늘렸음에도 절반가량을 팔았음으로 가득 채운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홈플러스의 강경수 베이커리상품본부장은 “가성비와 품질을 모두 갖춘 차별화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상품을 선보여 유통 트렌드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른 더위에 음식물처리기·에어컨 등 ‘불티’ ‘빅스마일데이’ 12일간 2135만개 팔렸다

유통업계 ‘슈퍼엘니뇨’ 예고에
샌들 팝업 한달이상 앞당기고
여름가전 구입시 상품권 증정
과일·뷰티 등 판매촉진 나서

유통업계가 한여름제품 판매에 벌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슈퍼엘니뇨’ 현상으로 여느 해보다 더위와 호우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고가 나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여름 샌들 팝업을 이미 4월 말에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이상 빨라진 것이다.

롯데하이마트는 5월 말까지 블렌더, 음식물처리기 상품을 할인하는 등 여름 주방 가전 수요 대응에 나서고 있다. 테



이른 더위로 위생적인 음식물 처리를 위해 음식물처리기 판매가 늘고 있다. 17일 서울의 한 가전매장에 다양한 음식물처리기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시스

팔·필립스·뉴크리볼렛 믹서기 및 고속 블렌더, 쿠쿠전자·신일·에코체·스마트 카라 음식물처리기 행사 상품을 사면 롯데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행사이다.

쿠팡도 이달 28일까지 여름 가전을 최대 65%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에어컨·선풍기·서큘레이터 등 냉방

가전, 냉장고·제습기·모기퇴치기 등 가전이 대상이다. 에어컨·냉장고 등 대형 가전 구매 시 설치해주는 로켓설치도 적용한다. 오후 2시 이전하면 익일배송이 가능하며, 직접 배송일을 정할 수도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4일까지 ‘수박유니버스’ 행사를 열고 고당도 수박·까망꿀 수박·애플 수박·망고 수박 등 판매 촉진에 나섰다.

앞서 롯데온도 지난 8~14일 여름을 겨냥해 온앤더뷰티 워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행사는 전년 대비 약 3주 앞당겨 진행된 것이다.

이밖에 식품업체들의 여름 겨냥 먹거리, 패션업체들의 냉방 활용 의류 등 하계 상품 출시 등이 연이어 이뤄지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G마켓·옥션, 하루 170만개 팔린 셈

G마켓과 옥션이 진행한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가 고물가에 더 크게 웃었다.

21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 8~19일 열린 이번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총 2135만개의 상품이 팔렸다. 하루 평균 170만여개씩, 매시간 당 7만4000개씩 팔린 셈이다. 행사기간 판매량을 일반 택배상자 크기(34×25×21)로 비교해 보면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다. 높이 쌓을 경우 441만m로, 에베레스트 산 약 500개를 쌓는 수준이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250개를 채울 수 있다. 길게 일렬로 두면 총 7140km에 달해, 서울에서 부산을 9번 왕복하는 거리다.

회사는 중소셀러의 스타상품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빅 브랜드사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경쟁

력 있는 상품을 선보인다는 전략이 적중했다고 평가했다. 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활용, 이번 빅스마일데이에 새롭게 적용된 초개인화 기술과 할인쿠폰 적용가를 자동 계산해 번거로운 쇼핑 동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전·디지털 제품 판매가 많았다. 행사가 종료된 19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G마켓 누적 매출 1위는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 로봇청소기’가 달성했다. 단일상품으로 매출 114억원을 넘기는 성과를 냈다. 이어 ▲에코백스 T10 옴니 로봇청소기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에어컨 ▲아이폰14 프로 256GB ▲갤럭시S23 울트라 512GB가 차례로 순위에 올랐다. 이번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G마켓과 옥션의 신규 고객도 지난해보다 17% 늘었다.

/이세경 기자 seilee@

GS25, 계란·두부·와인·과일 등 ‘갯세일’

GS25는 과격적인 행사 운영을 통해 물가안정과 큰 혜택으로 인기가 높은 갯세일(GOD SALE)이 나들이가 많은 시즌을 고려한 상품 구성으로 5월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 2월부터 ‘매월 20일에서 말일까지’를 갯세일 기간으로 지정해 행사를 펼치고 있다. 갯세일은 최고를 뜻하는 갯(GOD)과 할인을 의미하는 세일(SALE)을 결합한 행사다.

5월 갯세일은 ‘5월에 더(THE) 재미있게 채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감사함과 실속을 채울 수 있는 인기 상품들에 대해 1+1, 혜택가, 덤 증정 행사로 진

행된다.

물가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행사를 준비했다. 계란 신선특별시판단30입을 5900원, CJ 맛있는콩짜개용, CJ 맛있는콩부침용 두부와 델몬트 클래식바나나 2입은 1+1으로, 성주참외, 골드키위 등 과일류와 등은 알뜰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고객들의 더위를 날리기 위해 정사가 2만5000원인 넘버나인 크로이쳐 와인은 2병 구매시 2만원으로 병당 1만원, 하이네켄캔(4캔), 1664블랑캔(6캔), 클라우드생드래프트(8캔) 1만2000원 등 맥주 6종에 대해 번들 할인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SSG닷컴 1등급 여름가전 할인판매

SSG닷컴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여름가전을 할인 판매한다.

SSG닷컴은 22일부터 1주일간 ‘여름가전 첫 세일’ 행사를 열고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1등급 여름가전 제품 280여종을 할인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정사가 239만원인 ‘삼성그랑데세탁기+건조기세트’를 28%가량 할인한 170만원대에 판매하며, 정사가 199만원인 ‘삼성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는 약 24% 할인된 150만원대에 선보인다. ‘LG전자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875L 냉장고’는 정사가 220만원 대비 18% 할인된 181만원에 판매한다.

/이세경 기자

CU, 특산물 활용 ‘청도 홍시빙수’ 출시

편의점 CU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경상북도 청도군의 특산물인 홍시를 활용한 빙수를 선보인다.

이달 22일 출시하는 ‘청도홍시빙수’는 청도산 홍시를 활용한 프리미엄 빙수다. CU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이른 더위가 시작되자 하절기 대표 상품인 빙수를 예년보다 보름 가량 빨리 출시하며 빙과 라인업을 강화했다.

실제로 이달(1~19일) CU의 아이스크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3%나 올랐다. 이는 지난해 5월 아이스크림 전체 매출신장률(25.6%)보다 높은 것으로, 이 중에서도 빙수만 따로 보면 빙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 늘



었다.

청도홍시빙수는 최상단에 홍시 푸레시럽을 배치해 달콤한 맛을 강조한 상품이다. 그 아래로 홍시 과즙을 넣고 곱게 간 얼음 알갱이와 부드러운 식감의 우유 얼음이 2단과 3단으로 쌓인 구조가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나의 커피 취향 찾고, 나만의 에스프레소 한잔 어때요?”

르포 | 스타벅스 ‘별다방’ 3년만에 부활

36가지 아로마 원두로 직접 추출 커피 앰배서더와 DCM들이 맡아 전국 163개 매장에서 커피세미나 진행 커피 테이스팅, 퀴즈 등 선물 증정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스타벅스 커피세미나가 약 3년만에 ‘별다방 클래스’로 재단장해 돌아왔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스타벅스 아카데미 센터에서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별다방 클래스’가 진행됐다. 오는 30일부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될 ‘별다방 클래스’를 앞두고 선공개됐다.

이날 ‘별다방 클래스’에선 먼저 ‘에스프레소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제 18대 커피 앰배서더인 서우람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의 유레부터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특별한 방식들을 폭넓게 설명했다. 직접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그라인더를 사

용해 원두를 갈아준 뒤, 잘 갈린 원두를 컴프레소에 넣고 압력을 이용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 완성이다. 에스프레소를 위스키와 혼합해 ‘에스프레소 코레토’를 만들어 음미해보기도 했다.

서우람 바리스타는 “에스프레소를 평가할 때 시각과 후각, 미각, 질감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크레마의 색과 두께, 코로 들어오는 향기, 에스프레소를 입에 넣었을 때의 질감이 밸런스가 맞는지 느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올해 19대 앰배서더로 선정된 장광열 바리스타의 주도 하에 ‘좋아하는 커피 취향 찾기’가 진행됐다. 탁자 위에 놓인 36개의 아로마 키트는 커피 원두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을 분류해놓은 것으로, 카카오, 너츠류를 비롯해 오렌지 등 시트러스 계열의 향까지 다양했다. 이후 준비된 원두 세 가지를 시향하고, 음미하며 어느 원두가 본인 취향에 가까운지 생각해보는



서우람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의 유레와 즐기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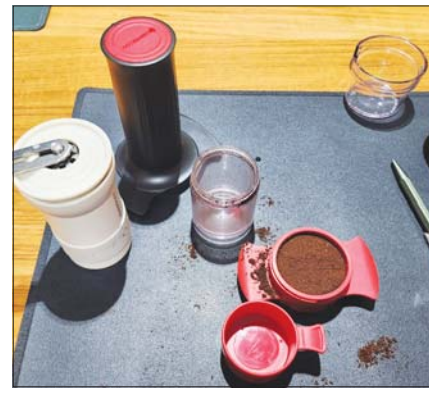
시간을 가졌다.

장광열 바리스타는 “커피를 마실 때에는 다양한 아로마를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다”며 “원두 분쇄과정부터 커피가 추출되어 나오고 커피를 마시기까지 모든 순간 느낄 수 있는 아로마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원두의 종류와 원두와 물을 섞는 비율에 따라 천차만별의 맛과 향이 난다는 점이 바로 커피의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18대 커피 앰배서더 양정은 바리스타가 진행하는 ‘커피 브루잉’ 시간

이 이어졌다. 이날 소개한 추출 방식은 핸드드립으로 가정에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기 위한 원두의 양과 물의 온도, 여과 팁 등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별다방 클래스’는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전국 스타벅스 163개의 거점 매장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고객들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스타벅스 커피 테이스팅, 커피 추출 방법 실습, 나만의 맞춤 커피 찾기, 커피 퀴즈를 통한



그라인더를 사용해 갈아준 원두. 컴프레소에 넣고 추출하면 에스프레소가 완성된다. /신원선 기자

선물 증정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별다방 클래스’ 진행은 스타벅스 최고의 커피 전문가인 커피 앰배서더와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벅스 DCM들이 맡게 된다. 스타벅스 DCM은 커피 추출부터 감별 및 커피 테이스팅, 커피 스토리텔링 등 스타벅스의 전문적인 커피 테스트 과정을 통과한 스타벅스 커피전문가들이다. 현재 약 2만3000여명 스타벅스 매장 파트너 중 160여명이 스타벅스 DCM으로 활동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대웅, ‘엔블로’ 3년 내 1000억 매출신화 도전

국산 1호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 신약 공격적 마케팅·강점 알리기 총력전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으로 성장 시킬 것

대웅제약이 지난 1일 출시한 엔블로를 1000억원 규모 ‘블록버스터’로 키운다.

대웅제약은 국산 1호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신약 ‘엔블로’를 3년 내 매출 1000억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출시 첫 달부터 엔블로 강점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엔블로는 국산 36호 신약이자 대웅제약이 국내 제약사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다. 동일 계열 치료제 30분의 1에 불과한 0.3mg만으로도 동등 이상의 우수한 혈당 및 당화혈색소 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았으며 체중, 혈압, 지질 등 심혈관 위험 인자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풍부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강점도 가진다.

대웅제약은 엔블로를 차별화된 영업



대웅제약 국산 1호 SGLT-2 억제제 신약 ‘엔블로’.

전략으로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으로 빠르게 성장시킬 계획이다.

먼저 대웅제약은 국내 의료진들에게 엔블로의 특징점을 알리기 위한 심포지엄을 매주 개최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전국 20여 개 이상 도시에서 두 달간 이어질 계획이다. 첫 심포지엄은 ‘엔블로드(ENVLO-D SYMPOSIUM)’라는 이름으로 지난 3일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됐다. 엔블로드는 국내외 당뇨병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엔블로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다. 30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웅제약은 심포지엄 개최와 함께 국제 학술대회, 학회 등 내분비내과의 주요 행사 참석을 통해 엔블로의 우수한 효능을 알리고 있다.

또 대웅제약은 내분비 분야에서 축적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검증 4단계 마케팅 전략과 영업 작동 원리 시스템을 엔블로에 적용하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2025년까지 15개국, 2030년까지 50개국 진출을 통해 차기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2형 당뇨병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8%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난해 약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SGLT-2 억제제의 단일제 및 복합제 처방은 지난 2021년 1500억원에서 2022년 1826억원으로 1년새 326억원(22% 성장)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BBQ, 美 배달·포장 전문매장 ‘BSK’ 1호점

직원 없이 주문부터 픽업 무인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미국 현지시간 19일 뉴저지주 잉글우드에 BSK(BBQ스마트키친) 1호점을 그랜드 오픈하고 배달·포장 전문매장을 통한 기하급수 성장을 이어간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외 외식업계에 무인·자동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BBQ는 지난 2020년 6월 국내에서 배달·포장 전문매장인 BSK 모델을 선보였다. BSK는 홀 없는 소규모 매장으로 초기 투자비가 저렴해 소자본 창업 희망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에 론칭 6개월만에 100호점을 오픈했으며 1년 만에 300호점을 돌파했다.

그리고 BBQ는 앞선 국내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BSK 매장을 선보였다. BBQ는 미국 BSK 매장에 키오스크와 음식을 픽업할 수 있는 푸드카(사물함)를 설치해 소비자가 직원 없이 주문부터 픽업까지 가능한 완



미국 뉴저지주 잉글우드에 BBQ가 BSK(BBQ Smart Kitchen) 1호점을 오픈했다. /제너시스 BBQ

전 무인화를 구현했다.

무인 매장 특성상 보다 신속한 제품 제공을 위해 기존 BBQ 매장에 비해 메뉴를 간소화해 배달·포장에 특화된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푸드카에 보관이 어려운 파우더형 메뉴는 제외했으며 허니·소이갈릭치킨, 갈비치킨, 강정치킨 등 바삭하면서도 매콤·달달한 맛에 미국에서 인기있는 양념류를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국제약 “처진 모공에 탄력 넣어요”

마데카 더블 타이팅 앰플 패드 얼굴 전체 프리미엄 탄력 관리 제품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이 오는 22일 처진 모공을 집중 케어해 폴페이스 탄력타이트닝 효과를 선사하는 신개념 탄력 관리 신제품 ‘마데카 더블 타이팅 앰플 패드’를 선보인다.

마데카 더블 타이팅 앰플 패드는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사용하는 패드로 2만 개가 넘는 얼굴 모공의 탄력과 모공

주변의 탄력, 나아가 얼굴 전체의 탄력에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탄력 관리 제품이다. 동국제약 핵심성분인 TECA(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특허받은 크라이오(Cryo) 기술로 추출한 얼음병풀, 청량감을 선사하는 쿨링에이전트가 배합된 동국제약의 새로운 독자성분 “TECA-TIGHT(테카-타이트)”를 함유해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준다.

여름철 더위로 인해 열오른 피부에 사용하기도 제격이다. 제품 사용 단 7초 만에 더위로 열 오른 피부의 온도를 7.4℃

낮추고 열로 인해 넓어진 모공을 급속 수축시키는 것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약 700개의 미세 솔이 달린 특수 브러시 원단의 친환경 패드를 적용해 손이 닿지 않는 피부 틈새와 모공 사이사이까지 세밀한 밀착 케어가 가능하다.

또 4가지 필링 성분인 AHA, BHA, NHA, 베타글리세리나이드를 플렉서블 리포솜에 담은 동국제약만의 딥 스케일링 독자성분 ‘MADECA-PEEL(마데카-필)’을 함유해 모공 속 딱딱하게 굳은 피지와 세안 후에도 남아 있는 노폐물,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의 제거를 도와 피부에 매끈한 광채를 더해준다.

/이세경 기자

롯데온,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개최

엄마·아빠가 하는 일 직접 체험

롯데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0일 임직원 가족을 초청해 ‘온앤더 패밀리’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직원 및 가족 약 200명이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해 부모님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 참여 가족들이 본사 사무실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 직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사용자경험(UX), 라이브 방송 체험 등으로 자녀

들이 부모님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추후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IT 직무 체험은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다. 롯데온에 적용된 다양한 IT기술을 소개하고 AI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제로 참석자들은 AI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인 미드저니를 사용해 본인 사진에 새로운 명령어를 넣어 AI가 그리는 그림을 눈으로 확인했다.

가족 사진 촬영이 포함된 UX 직무 체험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세경 기자

(baby
bear
muu)

3 yrs old
love baking!
(forest bakery)
chef.



무우우 [muu]

놀이공원 기념품샵에서 발견된 아가곰 인형.
같은 이름을 가진,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긴 곰인형을 모두
무우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NH농협은행, '제2회 RPA 빅리그' 개최

NH농협은행이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하고 업무 자동화 속도를 높인다. NH농협은행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과제와 업무 자동화를 위해 '제2회 RPA 빅리그'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태영 부행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RPA 빅리그에 참여한 직원들이 개막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현대글로비스 럭비단, 슈퍼리그 2차 대회 우승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이 2023 코리아 슈퍼럭비리그 2차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왕좌를 차지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소속 럭비단이 2023 코리아 슈퍼럭비리그 2차대회 최종전에서 국군체육부대를 제압하고 우승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우승으로 2015년 창단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총 4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썼다. /현대글로비스



중앙대-금천구,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 맞손

중앙대학교와 금천구가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금천구청에서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일자리 연계사업 발굴 등 폭넓은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유성훈 구청장과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대



호서대, '예비 영양사들의 맛있는 섬김' 행사

호서대학교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예비 영양사들의 맛있는 섬김' 주제로 대학 내 용역근무자와 단과대 교수님들을 초청해 직접 조리한 음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품영양학과와 영양판정과 단계식관리 수업과 연계해 3학년 학생들은 BMI, 혈당, 콜레스테롤 등 간단한 건강 체크 및 영양상담을 했다. /호서대



인하대-강원대, 초·중학생 진로 프로그램 운영

인하대학교는 최근 강원대와 함께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다문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는 다문화교육학과, 강원대학교 인문치료학과 BK21 지역협력교육연구단과 함께 양구군 다문화가정, 드림스타트 가정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펼쳤다. /인하대

“고객 일상에 더 가까이”… 코웨이, 체험형 매장 확대

‘코웨이 갤러리’ 연이어 오픈 ‘체험모드’ 통해 핵심기능 경험

코웨이가 고객들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오프라인 체험 매장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다.

21일 코웨이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브랜드 체험 및 판매 매장 ‘코웨이갤러리(Coway Gallery)’를 추가로 열었다.

코웨이갤러리 용산아이파크몰점은 서울 강남논현점, 구로G타워점 그리고 경기 기흥 리빙파워센터점에 이은 코웨이의 네 번째 오프라인 직영 매장이다.

이번 매장은 기존 팝업스토어가 위치했던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5층에서 동일하게 운영하며 넓어진 매장 크기만큼 다양한 제품들을



코웨이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새롭게 연 브랜드 체험매장 ‘코웨이 갤러리’ 전경.

만나볼 수 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안마의자 등 60여 개 제품을 상세히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체험 요소와 전시 공간 인테리어를 강화했다.

코웨이갤러리 용산 아이파크몰점에선 슬립 앤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BEREX)’의 주요 제품인 스마트

매트리스와 안마의자 마인 등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방문 고객들은 매장에서 준비한 ‘체험 모드’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핵심 기능만 모아 경험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같은 오프라인 체험 매장 확대는 B2C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들에겐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SK이노, 구성원 가족 초청… 2000명 ‘웃음꽃’ 활짝

가정의 달 맞아 ‘오픈하우스’ 행사 마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SK이노베이션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구성원 가족을 회사로 초청해 행복한 추억을 쌓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구성원 가족 초청 행사인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린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 및 구성원 가족 2000여명이 참석했다.



SK이노베이션 구성원 가족이 20일 SK서린빌딩에 열린 구성원 가족 초청행사 ‘오픈하우스’에 참여해 행코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오픈하우스는 SK이노베이션의 대표 구성원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인 ‘행복산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5

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코로나19로 지친 구성원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처음

삼바 바이오캠퍼스 ‘놀이공원’ 변신

임직원 자녀 초청행사 개최

삼삼바이오로직스의 제1바이오캠퍼스가 ‘놀이동산’으로 변신했다.

삼삼바이오로직스가 가정의달을 맞아 지난 20일 임직원 자녀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삼삼바이오로직스 제1바이오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총 900여명의 임직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9시부터 약 6시간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바이오캠퍼스를 놀이공원으로 탈바꿈시켰

다. 임직원 자녀가 직접 회사를 체험하며, 엄마아빠가 하는 일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과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23만8000㎡ 규모 캠퍼스 내에 미니 열차를 설치해, 자녀들이 기차를 타고 사업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무공간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모든 건물을 개방했다.

바이오캠퍼스 곳곳에는 가족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도 설치했다. 에어바운스, 풍선아트, 잉어 먹이주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이벤트도 진행됐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삼삼바이오로직스 제1바이오캠퍼스에서 열린 가정의 달 행사에서 임직원 자녀들이 바이오알(의약품 보관 용기)로 스노우볼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알(의약품 보관 용기)로 스노우볼 만들기, 가운 입기 체험 등 바이오산업 관련 용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이 부모님의 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현대삼호중, 임직원 안전응원 방송 송출

음성메시지 공모… 사내 전파

“아빠 오늘도 안전!”,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알지!”

HD현대의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매일 하루에 두 번 임직원 가족이나 지인의 안전 응원 음성

메시지가 88만평 회사 전 지역에 사내 스피커 1000여 개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21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안전 응원 메시지는 지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임직원들로부터 공모했다. 임직원 가족이나 지인

이 안전 응원 및 당부의 말을 1분 이내 음성 메시지에 담아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1056명이 응모했으며,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심사를 거쳐 우수작 16편을 선정해 최신행 노트북과 아이패드, 리조트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수여했다.

/양성운 기자 ysw@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이들에게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체험형 매장은 단순히 제품을 사고 팔던 기존 매장과 달리 자유롭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색적인 브랜드 체험까지 제공하는 신개념 오프라인 매장을 의미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웨이갤러리는 깨끗한 물, 상쾌한 공기, 느긋한 여유가 담긴 곳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휴식처인 동시에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코웨이이라는 브랜드가 고객들의 일상 속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oul.co.kr

으로 개최됐다. 당시 행사에 참가한 1000여명의 구성원과 가족들이 보내준 폭발적 반응에 올해는 참가자 수를 두 배로 늘려 이틀간 진행했다.

올해도 SK서린빌딩 8개 층에는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구성원과 가족들은 근무공간인 공유 오피스를 함께 둘러보고 ▲마술쇼 ▲가족사진관 ▲SKI계열 사업회사 소개 전시관 ▲친환경 실천 게임 ▲타로카드 등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예약제로 운영되는 가족사진관은 올해 3개 테마로 확대돼 더 많은 구성원들이 오늘의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현철호 네네치킨 대표 모교 건국대에 1억 기부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최근 네네치킨(㈜혜인식품) 대표이사인 현철호(사료 81·사진) 동문이 건국 발전기금과 장학기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성된 ‘네네치킨 장학기금’은 상해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줄기세포재생공학과 학생 중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의 열의를 가진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

부음

▲권정자씨 별세, 강석훈(KDB산업은행 회장)·강석항·강석남·강석자·강진숙씨 모친상, 이현·유영규·김세병씨 장모상, 손은하씨 시모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장지 경북 봉화 선영. 02-3410-6917 ▲이희숙씨 별세, 조성환(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코치)씨 장모상 = 20일, 한일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오전 11시. 02-901-3440

회생절차서 채권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 조건



박 규 혁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채무자가 도산절차(회생·파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법원이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다. 도산절차에서는 법원이 개입해 채무자의 나머지 자산을 환가시켜 채권자들에게 채권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일정 비율만큼 ‘공평’하게 변제하도록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상당수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 전부를 변제받으리라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에도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우선 공익채권자들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각종 조세, 차입금 등 채무자의 업무 및 관리에 관해 발생한 청구권 등이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수시

로 변제해야 하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도 우선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주문을 기재한 포괄적 금지명령결정을 발령한다. 그런데 위 주문에는 ‘공익채권자’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담보물이 채권액을 상회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회생담보권자들이다. 물론 담보물의 가치가 자신의 채권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담보물을 처분해도 채권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때는 자신의 채권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담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회생담보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의 90%에서 100%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쉽고 그 자산가치가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동하지 않는데다가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기준으로 120% 정도

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한 회생담보권자들은 채권 전부 또는 그 상당수를 변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회생절차에서 M&A가 이뤄지는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채무자 회사의 가치가 상당해 채무자 회사를 인수하려는 후보들이 많아 입찰가격에 대한 경쟁이 붙는 경우다. 드물지만 회생채권자들의 채권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수대금이 정해질 수도 있다. 간혹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진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M&A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다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회생계획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접어든다는 소식을 접한 경우에는 발빠르게 자신의 채권이 어느 정도 변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회생절차 내에서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기자 수첩

박 정 익
(유통&라이프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 순방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이후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미국 국빈방문을 시작으로 이달 초에는 12년 만에 일본과의 셔틀외교를 복원시켰으며, 지난 17일에는 위스탕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까지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첫날부터 베트남·호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이탈리아·인도·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일·한미일 정상회담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독일 및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이자, 한국과 태평양양도서국 간 첫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정상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거나 외국기업으로부터 국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윤 대통령의 ‘국익우선주의’ 외교 방침은 투자 유치와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활발한 정상외교에 비해 국내 현

안 및 갈등을 풀기 위한 내치(內治)는 아쉬운 점이 있다.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 정치의 갈등은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전 최장 기록은 339일 만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숨 가쁜 정상외교를 수행하는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pathfinder@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22일 (음 4월 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회사 내부의 낭비 요소를 찾아 밑 빠진 독을 막도록. 48년생 가정사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이다. 60년생 부부간에 모처럼 외식으로 즐겁다. 72년생 시간약속을 잘 지켜라. 84년생 친구 일에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준다.



37년생 가까운 사람과 금전거래 하느니 그냥 주어라. 49년생 이성간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교제는 절대 아니다. 61년생 결정이 늦어져 일이 미뤄진다. 73년생 마가 끼니 초조하지 않도록. 85년생 상복 수로 형제 없는 운세.



38년생 얄짤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하니 문서 잘 살펴라. 50년생 작은 일에 집착하다 보면 눈앞의 이익도 놓친다. 62년생 상사의 협력을 논하지 마라. 74년생 늘 준비하자. 86년생 결혼 인연이 재물 이상으로 값있다.



39년생 날이 밝아 오니 고민이 사라진다. 51년생 마음은 바쁘지만 따라가지 못해 답답. 63년생 송사에 걸릴라 다툼에 참견하다. 75년생 같은 토끼띠와 일하다 중도 포기된다. 87년생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생기는 뻔뻔한 하루.



40년생 뒤늦게 경쟁자가 생기니 양보하자. 52년생 남녀간에 생각이 다르니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64년생 사고의 후유증이 되살아나서 심신이 괴롭다. 76년생 아침부터 바빠진다. 88년생 지나친 간섭은 집착중세로 보일 수.



41년생 참석해야 할 경조사를 잘 챙겨라. 53년생 작은 이익이 생겨서 활기차다. 65년생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 77년생 계획이 생기니 의욕도 충전. 89년생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일이 깨어져 너무 큰 상처를 받는다.



42년생 동업자와 문제가 있으나 서로 양보하게 된다. 54년생 음의 기운이 강하니 새이성에 눈을 뜬다. 66년생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라. 78년생 분노 조절 상태를 왜 직장에서 찾으려하는가. 90년생 오후모임에서 좋은 인연이 생긴다.



43년생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 내일이 있다. 55년생 작은 이익 때문에 친구와 분쟁이 생기니 신중히 생각하라. 67년생 하루가 조용하다. 79년생 종일 컨디션 조절이 필요. 91년생 계약 문제는 오후에 물꼬가 트인다.



44년생 비 온 뒤에 다시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다. 56년생 진행하는 일에 결과가 따른다. 68년생 영업에서 큰 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80년생 명성을 얻게 되어 행운이다. 92년생 여럿모이는 산행에서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45년생 말띠와의 거래가 순조로우니 경사롭다. 57년생 요행을 바라거나 일을 미루면 손해. 69년생 활력이 아니 조직에도 이득이 생긴다. 81년생 지속해서 나가는 자세로 영업에 몰두하자. 93년생 재개발문서가 해결될 것이나 기다려라.



46년생 저녁에 일찍 귀가하여 지출을 줄이자. 58년생 노력하여 일이 풀리니 근심이 사라진다. 70년생 혼자만의 명상을 해보라. 82년생 남의 눈치보다는 노력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94년생 가족회의로써 의논하여 일의 성취가 된다.



47년생 공짜 좋아하다 망신 수가 발생. 59년생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으니 먼저 베풀어라. 71년생 분수를 알면 행운이 찾아온다. 83년생 내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라. 95년생 언제나 종이 매 처리 못 꾸이니 협조정신을 발휘.



김상회의四季

이렇게 좋은 날

올해부터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인지라 월요일까지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그 가르침을 멋지게 체득한 분의 첫째가 원효대사가 아닐까 싶다. 너무 유명하여 상식이 되다시피 했지만 그 해골물 일화를 잠시 소개해 본다. 신라시대 때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은 당대의 촉망받던 스님들이었다. 보다 원웅하게 불교를 배우기 위해 함께 당나라로 가던 중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캄캄한 숲을 헤매다가 겨우 마땅한 휴식처를 발견하여 하룻밤 쉬어가기로 한다.

비 오는 밤 산길을 헤맨 터라 바로 잠이 들었고 목이 마른 나머지 깨어 물을 찾던 중 어둠 속에서 물이 담긴 바가지를 발견하니 맛있게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잠에서 깨어나 보니 잠을 잔 곳은 움막이 아니라 파헤쳐진 무덤 속이었다. 게다가 원효스님이 맛있게 잠결에 마신 물은 해골에 고여 있던 물이었다. 분명 똑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그렇게 맛있고 달콤했던 물이 해골에 담겨 있던 물이라는 것을 알자 더럽게 느껴지고 구역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 물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서 그 유명한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를 단박에 체득하게 된 것이다. 스님은 굳이 당나라까지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다시 신라로 돌아온다. 그 후의 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효스님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첫 손에 꼽히는 대각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좋은 날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구절이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그분, 스스로 바르게 진리에 이르신 분 정등각자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경을 드려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의 놀이터**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6		2		9
		3			1
			3	5	
3					4
		4	1	9	3
1					9
			9	6	
		8			9
	2		1		7

			5	3	
	1				8
		3		6	7
2	1		3	9	5
3					6
5	8		7	1	3
		2		4	6
	3				9
			3	6	

정답

8	7	8	1	9	9	2	6
9	8	6	7	2	8	1	9
1	9	2	9	8	6	7	8
6	9	7	8	8	2	9	1
2	8	8	6	9	1	7	9
7	1	9	2	7	9	6	8
7	2	9	9	6	8	1	7
9	7	1	8	9	7	8	2
8	6	8	1	2	7	9	9

7	1	9	9	2	8	7	6
8	6	2	9	1	7	9	8
7	8	9	8	7	6	2	9
9	7	1	2	7	9	8	9
9	2	8	6	9	1	7	8
9	7	6	7	8	1	9	2
6	9	7	1	9	2	8	7
2	8	8	7	6	7	9	1
1	9	7	8	9	6	2	7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실무교육 통해 경쟁력 UP...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눈길’

심화교육으로 전문기술인 육성
일반대학 대비 높은 취업률 기록
대기업 취업·이직 사례 줄이어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거친 뒤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히는 ‘네이버’에 입사하거나, 중소기업 비서에서 대기업 회계직으로 전직하는 등 전문 기술인으로 자리매김한 학생들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가 최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졸업생 취업 사례와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간 융복합교육과정 등을 발표했다. 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 심화교육 기회를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의 교육제도다.

경인여자대학교 광고디자인학과 이은



용인예술과학대 비서경영학과 전문학사과정 문현정 씨(사진)은 중소기업 비서직에서 삼성 KPMG 회계부로 자리를 옮겼다.

비(25) 씨는 경인여대에서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후 2020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했다. 이씨는 세분된 인지도 확보 전략부터 심화한 디자인 기술을 배워 ‘네이버 디자인 패스트 포워드’ 채용 연계형 인턴을 거쳐 UX/UI설계 담당 디자인 파트로 2022년 1월에 네이버 입사를 했다.

이 씨는 “설계자의 임무는, 정보 제공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손혜주 씨가 서울국제실용영화제에서 작품 ‘지표(Landmark)’로 수상했다.

/전문대교협

자가 정보를 통해 담고자 했던 마음을 사용자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유의미한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라며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더 세분된 전공의 학업을 배울 수 있었다. 자기 분야에 대해 더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전공심화과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비서경영학과 문현정(27)씨는 전문학사 재학 시 중소기업 회장 비서로 조기 취업했고 임원 일정 관리, 회의실, 내방객 전화 응대 등 비서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다시 모교 비서경영학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문 씨는 2020년 전공심화과정 졸업을 앞둔 시기 삼성KPMG의 회계부 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했다.

문 씨는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더 넓은 영역의 직업군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고 다시 취업할 수 있었다”며 “미래 회계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세무회계, 재경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전공심화과정에 재학 중이던 손혜주(27) 씨는 지난해 ‘지표(Landmark)’라는 작품으로 제19회 서울국제실용영화제에서 ‘중운 어워드’ 상을 받았다.

계원예대는 전공심화과정 커리큘럼

을 바탕으로 청년 예술가의 자립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융합예술학과에서는 전공심화과정만의 ‘자립형 청년 예술가’라는 목표로 필요한 3C(연결성, 호환성, 공존 가능성) 모델을 제시해 학과 교육과정에 적용했다.

성기완 융합예술학과 교수는 “이 과정은 순수미술 지향적 과목보다는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의 멀티미디어 과목에서 아티스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공심화과정은 산업계 요구에 기반한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통해 2022년 기준 일반대학 64.2%대비 높은 78.1%의 졸업자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2008년 도입된 지 2월 기준 졸업생 약 12만 명이 배출돼 사회 전반 각 영역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자신의 역량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서울대병원 운영기관 선정

서울시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출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서울대병원’을 장애친화 산부

인과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서울대병원 본관 3층에 설치됐다. 이곳에는 휠체어 이동 공간이 확보된 진료·분만·수술실,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동 침대 등 여성장애인 맞춤형 장비(15종 29대)가 갖춰져 있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추경 63억 편성... 이자 지원 등 집행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63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광역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3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출 이자 지원 38억 5000만 원 ▲이사비 지원 7억 5000만 원 ▲월세 지원 17억 원 등이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따름이, 대여건수 1.4억 돌파... 3.9억km 누벼

출퇴근 등 주요 교통수단 자리매김
최다 이용 자치구 강서 > 송파 順

서울공공자전거 따름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치구는 강서, 송파, 영등포구였다. 주 수요층인 젊은 직장인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 근거리 환승이동수단으로 대거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2월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 공공자전거 따름이의 누적 이동 거리가 지난달 말 기준 3억8700만 km를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약 510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다.

누적 대여건수는 1억4000만건을 넘어섰다. 연간 이용건수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급증해 2022년 4095만건으로 2021년 3205만건 대비 27.7% 늘었



따름이 이용 모습.

/서울시

다. 겨울철 비수기에도 따름이 일평균 대여건수가 5만건(올 1월 기준)을 웃도는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권을 구매해 이용하는 고정 수요층도 늘고 있다. 최근 3년(2020~2022년) 정기권 이용 비율은 2020년 74.8%, 2021년 77.9%, 2022년 80.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반복·다수인’ 민원해소 팔 걷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서울시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동일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해 종결 처리된 건수는 총 7309건에 달한다.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반복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대부분 민원행정 추진사항 보고

등으로 민원을 조정·해소하는 심의 안건이 없었다”며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령·조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은 연 1회 이상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이 재접수되면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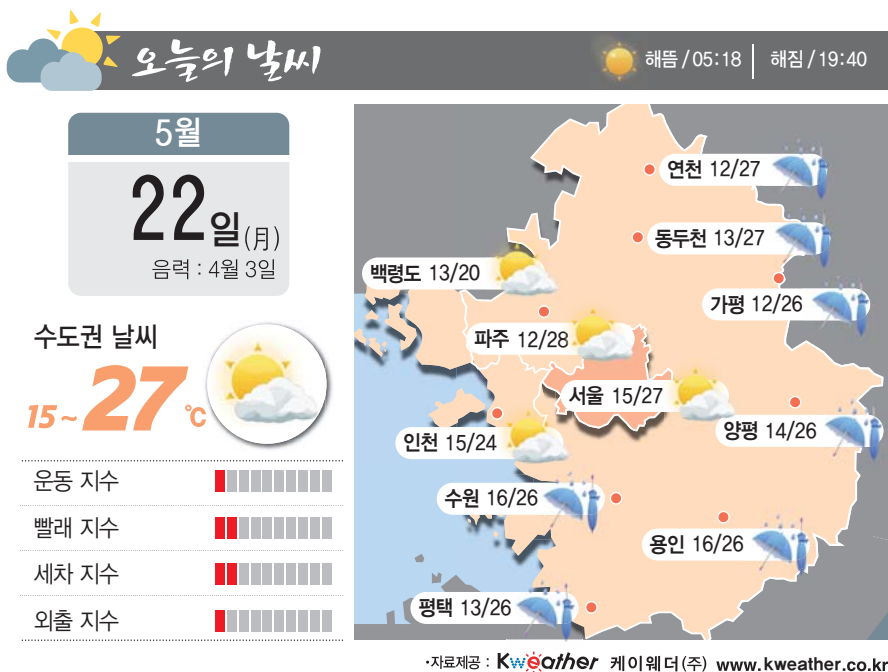
삼육대 맞춤형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삼육대학교가 유연학기제, 집중학기제, SU-이노베이션데이 등을 골자로 한 학생맞춤형 학사지원시스템 ‘SPACE 시스템’을 구축했다.

21일 삼육대에 따르면, ‘SPACE 시스템’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것으로 삼육대만의 독창적인 창의·융합적 학사구조다.

학사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 공간(space) 전체를 창의융합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현진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초·중학생 학부모 88% “자녀, 이과로 진학 희망”
▲ 상체 15도 숙여 경례·악수편 차렷차세로...소방관 예절규정 폐지 /사진 뉴시스

▲ 강남 납치살인·JMS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선정
▲ ‘연 26조’ 사교육비 치솟는데...‘부모찬스 지표’ 개발 지지부진



▲ 오페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10년간 154명 사망
▲ 전동킥보드 화재 급증, 5년 만에 23배...“충전 때 가장 주의” /사진 뉴시스



‘반갈샷’ 열풍
편의점 업계
디저트 빵 한판대결
L1

metro[®]

Life

스타벅스 ‘별다방’
3년만에 부활
“커피 취향 찾아요”
L2



사고력 키우는 가장쉬운 방법 ‘질문’… 학습의 기본은 ‘독해’



새벽을 여는 사람들

CPS 교육연구소장 박 주 봉

“학습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갖추는 일이다.”
박주봉 CPS교육연구소장은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아이는 어떤 문제는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아이들이 홀로 공부할 때 필요한 요소나 방법, 학부모들이 도와줘야 할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담은 ‘공부자립’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사고 균형은 머리의 기본 바탕에 대한 훈련이고, 과제집착력은 태도에 관한 훈련이며, 문제해결 프로세스는 기술에 관한 훈련이다”라면서 “우리는 사고력 교육이 아니라 사고력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행동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력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

이 책을 쓴 박 소장은 17년간 사고력교육전문가로 활동하며 초등 전문 사고력 프로그램을 개발한 CPS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그는 평소 창의력에 관심을 갖고 CPS교육연구소를 창립했다.

세계 퍼즐 연맹(WPC) 한국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창의퍼즐협회 이사장도 맡고 있는 그는 2006년에 처음으로 학습 역량 진단을 위한 CPS진단검사를 만들고 전국 백여 개의 교육기관에서 현재까지 2만명이 넘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박 소장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고하는 역량이 높은 아이는 대체로 4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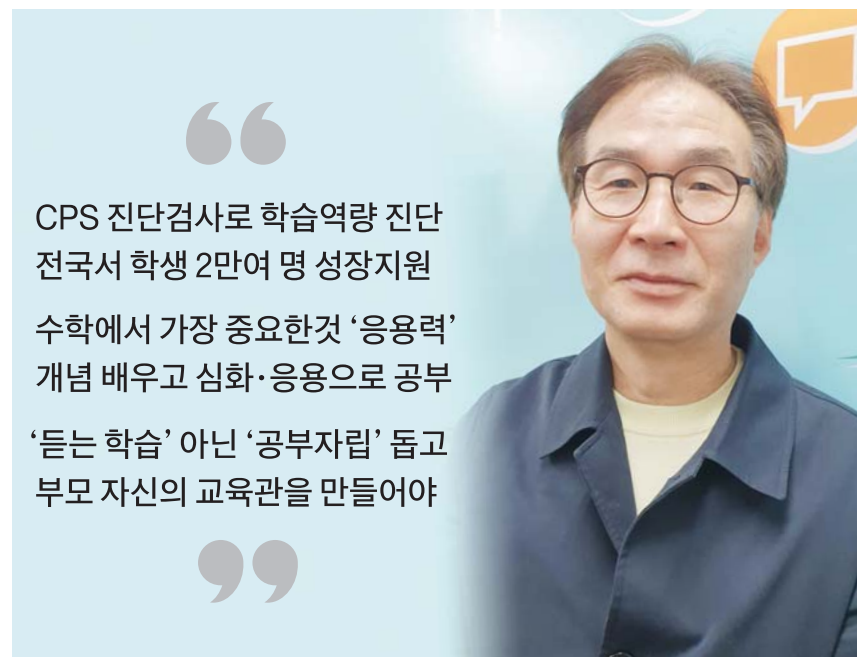
첫째는 스스로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쉽게 부모나 선생님께 못 풀겠다고 들고 오지 않는다. 둘째는 문제를 허투루 보지 않는다. 꼼꼼하게 문제를 파악한다는 말이다. 셋째는 개념이든 문제이든 이면의 의미나 다른 것과의 관계성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간혹 학교나 참고서가 요구하는 표준적인 해결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즉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 넷째는 긍정적이다. 틀려도 긴장하지 않고 다시 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한다”며 “변화가 오기까지 경험적 측면으로는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린다. 거기까지 끌어올리느냐 못하느냐는 사고력 훈련의 목표이다. 경험으로 70% 정도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모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자주 해줘야 아이들도 질문 만드는 법을 배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문하고 난 후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며 “아이가 답변하는데 판단을 쉽게 내리지 말아야 한다. 대응한 상태로 들어주고, 그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고 계속 아이의 말에 대해 물어보면 된다. 그것이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요즘 교육의 현실이고, 질문을 하는 법, 질문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질문은 문제를 바라보



“CPS 진단검사로 학습역량 진단
전국서 학생 2만여 명 성장지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응용력’
개념 배우고 심화·응용으로 공부
‘듣는 학습’ 아닌 ‘공부자립’ 돕고
부모 자신의 교육관을 만들어야



박주봉 소장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 출간한 책 ‘공부자립’.

는 관점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관점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문제의식은 관심과 호기심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교육환경에서 핵심은 독해력, 수학에서는 응용력

여전히 학습 시스템은 아이들로 하여금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육의 목표를 아직도 더 많이 알도록 하는 것에 두고 있으니, 아이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릇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의 목표를 새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습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갖추는 일이다.

박 소장은 이를 위해 문해력보다는 독해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지식은 이해와 분석과 통합이 핵심이다. 그래서 독해를 강조한 것”이라며 “공부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연구 리포트를 내거나, 보고서를 내거나 또는 그 글이 길거나 짧거나 심지어 광고 문구까지도 이해, 분석의 과정은 필수이다. 시대가 변

해도 어쨌든 독해가 핵심인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박 소장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응용력으로 꼽았다. 학교에서 개념을 배우면 그것을 심화하고 응용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공부라는 것이다. 응용이 필요한 문제는 대개 수학적 개념이 복합적으로 포함되거나 사고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해와 탐구가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된다.

박 소장은 “심화를 해 봐야 아이의 진짜 이해도를 알 수 있다. 그래야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면서 “실제로 공부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심화는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록 이해력이 떨어지더라도 심화까지 경험하게 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서 기본, 실력, 심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를 모두 거치도록 해야 한다. 속도의 차이를 두고, 시간을 주면 조금씩 해결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분 아이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부모의 의지대로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이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어 아이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교육을 피할 수 없는 요즘 교육 환경에서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소장은 “‘듣는 학습’이 아니라 ‘공부자립’을 돕는 학원을 선택해 줘야 한다”면서 “학원 등의 마케팅 수사보다는 부모 자신의 교육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버스타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G7, 이례적 폐막 전 날 공동성명 발표
…“젤렌스키 일본 방문 탓” /사진 뉴시스
▲ 젤렌스키, 바흐무트 함락 인정…바이든 “우크라이나 모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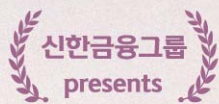
▲ 홍콩서 사라진 텐안먼 시위 추모집회, 대만서 재개된다
▲ “中, 4년 이상 DF-27 운용” 주장…美 하와이·알래스카 사정권



▲ “대만군 중국 침공 대비 훈련에 미군 퇴역장성 참관”
▲ 기시다 “G7, 中과 안정적 관계 용의…북핵·미사일·납치 문제 협력” /사진 뉴시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영화 같지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에 평범한 일상마저 위태로워진 가족,
도움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며 이겨내는 위기 극복 감동 실화

따뜻한 내일을 위해 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

이웃의 위기 극복 실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선한 세상 이야기

【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2018년에 시작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4,800여 가정을 지원하고 함께하며,
우리 곁의 이웃들이 따뜻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감동 실화 감상하기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S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